

석사학위논문

시민 기록 활동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중심으로-

2026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김 세 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진호

시민 기록 활동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중심으로-

A Narrative Inquiry into Citizen Recording
Practices: during the December 3
Martial Law Crisis

2025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김 세 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진호

시민 기록 활동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중심으로-

A Narrative Inquiry into Citizen Recording
Practices: during the December 3
Martial Law Crisis

위 논문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김 세 현

김세현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정경희 (인)

심사위원 이호신 (인)

심사위원 박진호 (인)

국 문 초 록

시민 기록 활동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김 세 현

본 연구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고 삶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내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록한 시민 기록가들의 기록 활동과 그 의미를 추적하였다. 연구자는 ‘기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과 ‘왜 이들은 위험 속에서도 기록하기를 선택했는가’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자전적 내러티브를 구성하였으며, 현장에서 만난 세 명의 연구 참여자인 민이현, 민정아, 민영주와 함께 연구 퍼즐을 완성해 나갔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각각의 개성을 살려 민이현의 수필 <두 번은 후회하기 싫어서>, 민정아의 소설 <판도라의 상자 아래에는 결국 희망이 남아 있다>, 민영주의 독백 희곡 <사람을 잇고 미래로 향하는 다리가 되어>로 재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낸 경험은 연구 참여자 본인뿐 아니라 그 공간에 함께 있던 이들이 그곳에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광장에서의 기억을 남기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사실만을 건조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경험과 감정을 함께 기록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록의 동기를 유발하는 정서적, 신체적 변동인 ‘정동’에 대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기록 활동에 임했다. 그리고 스스로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은 당당히 기록의 주체로 변모한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이 남긴 기록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 장면으로 오래도록 전승될 것이라는 기대와, 거기서 비롯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기록과 아카이브의 ‘여백’은 결코 완벽하게 보완될 수 없지만, 이 여백이야말로 기록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 아카이브는 닫혀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이는 사람들이 여백에서 새로운 의미를 읽어내게 하고 새로운 기록 행위로 이끈다. 개별 기록은 불완전할지라도, 다양한 주체로부터 생산된 기록은 상호보완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루는 일종의 퍼즐 조각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인 ‘나’의 기록에 대한 깨달음과 시민 기록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호명하며 마무리된다. 독자인 여러분은 이 이야기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떠한 기록을 남기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요어】 시민기록, 사회적 기억, 정동, 아카이브 액티비즘, 내러티브 탐구

목 차

| | |
|---|----|
| 제 1 장 기록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 1 |
| 제 1 절 기록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기까지 | 1 |
| 제 2 절 연구자의 위치와 연구 윤리 | 8 |
| 제 2 장 내러티브 탐구: 용감한 시민 기록가들을 만나기에 앞서 | 10 |
| 제 1 절 내러티브 탐구란 무엇인가 | 10 |
| 제 2 절 내러티브 탐구의 일반적 절차 | 13 |
| 제 3 절 연구의 발자취 | 16 |
| 1) 현장에 들어가기 | 17 |
| 2) 현장텍스트 구성 | 21 |
| 3) 현장텍스트 분석 | 25 |
| 4) 연구텍스트 작성 | 26 |
| 제 4 절 연구의 신뢰도 확보 | 27 |
| 제 3 장 12·3의 밤, 기록하는 마음들 | 30 |
| 제 1 절 두 번은 후회하기 싫어서 | 30 |
| 제 2 절 판도라의 상자 아래에는 결국 희망이 남아 있다 | 49 |
| 제 3 절 사람을 잇고 미래로 향하는 다리가 되어 | 67 |
| 제 4 장 시민 기록가들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의미 | 86 |
| 제 1 절 기록하기로 한 이유: 망각에 저항하다 | 86 |
| 제 2 절 기록이 가지는 의미: 우리를 묶어주는 정동의 끈 | 88 |
| 제 3 절 시민 기록 활동의 가치: 공백을 채우는 대항기억 | 91 |
| 제 4 절 소결: 시민 기록은 끊임없는 과정이자 질문이다 | 92 |
| 제 5 장 결론: 이야기를 마치며 | 94 |

| | |
|------------------|-----|
| 참 고 문 헌 | 96 |
| 부 록 | 101 |
| ABSTRACT | 108 |

표 목 차

| | |
|--|----|
| [표 2-1]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지점과 듀이가 제시한 경험의 속성과의 매핑 | 11 |
| [표 2-2] 내러티브 탐구의 일반적 절차 | 14 |
| [표 2-3] 본 연구에서의 내러티브 탐구 절차 | 17 |
| [표 2-4] 연구 참여자 | 18 |
| [표 2-5] 제1차 면담의 질문 범주 | 22 |
| [표 2-6] 제2차 면담의 질문 범주 | 23 |
| [표 2-7] 제3차 면담의 질문 범주 | 23 |

그림 목 차

| | |
|---|----|
| [그림 3-1] 짤: 이 나라는 망한다! | 32 |
| [그림 3-2] 백남기 농민 관련 기사와 그 댓글 | 35 |
| [그림 3-3]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옥상정원에서 촬영한 사진 | 38 |
| [그림 3-4] 조명을 점검하는 집회 운영진 | 40 |
| [그림 3-5] 페미니즘 단체들의 깃발 | 41 |
| [그림 3-6] 전국여성연대가 건 집회평등수칙 현수막 | 42 |
| [그림 3-7] 정아가 인터뷰이를 모집할 때 사용한 피켓 | 55 |
| [그림 3-8] <팬덤에서 자유로(모두의책협동조합)>의 표지 | 61 |
| [그림 3-9] 남태령에서 대치 중인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와 경찰 | 70 |
| [그림 3-10] 남태령에 모인 시민들 | 71 |
| [그림 3-11] 남태령 기록보관소의 전농 공식 라이브 영상 제보 요청 | 73 |
| [그림 3-12] 오전 시간대, ‘바톤터치’를 위해 남태령에 온 시민들 | 79 |
| [그림 3-13] 한강진에서 행진하는 트랙터를 보며 환호하는 시민들 | 81 |

제 1 장 기록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제 1 절 기록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기록관리학에 관심 가지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문헌정보학과 1학년 시절, 기록관리학이 비교적 유망한 분야로 소개되었던 점도 있었고, 무엇보다 ‘기록을 관리하는 일이 멋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하지만 그것을 멋있다고 여기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생각이나 직접 그린 그림 같은 작업물을 모아 남기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또한, 단순히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굳이 분류하고, 딱지를 붙이는 것을 좋아했다. 표현을 달리 하면 다소 강박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성격이 그랬다.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문방구에서 파는 정부분서용 홀더에 학교 시험지와 교내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활동 기록, 좋아하는 잡지 스크랩을 차곡차곡 정리하곤 했다.

그렇게 모은 자료들은 정부분서상자에 넣어 보관했다. 일기를 검사하는 나이가 지났지만, 종종 다이어리를 사서 간밤에 꾸 꾸 꿈을 포함한 재미있는 일이나 기억해둬야 할 일들을 적어두고는 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그 일기를 주로 남기는 곳이 클라우드형 메모장이나 블로그로 이동하긴 했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자연스러웠던 나에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특별한 선택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관심의 연장이었다.

어릴 때는 산부인과 의사, 조명 디자이너, 혹은 천체 물리학자를 꿈꾸기도 했고, 한창 20대가 시작될 때는 싱어송라이터를 꿈꾸기도 했지만 잘 풀리지는 않았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나의 성향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나는 분류하고 레이블링하는 영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문헌정보학적 언어로는 분류와 목록의 영역이며, 기록학적 관점에서는 정보 자원으로서의 기록을

출처의 원칙과 원 질서 존중의 원칙에 따라 조직하고 기술하는 세계였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비로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기록관리학 석사 과정에 진학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은, 기록학계에서 다루는 기록은 당시의 내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기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나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도 어렵고, 나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것이 ‘기록’이라는 개념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기록은 무엇이고, 특히나 기록학계에서 생각하는 기록은 무엇이길래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일까?

보통 사람들은 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기록을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로 정의하고 있다. 도서관 등지에서 ‘기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기록학, 혹은 역사학과 관련된 도서도 있지만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기록을 다룬 책들이 더 많다. 법정에서의 기록, 마을 주민들의 기록, 개인의 아이디어를 담은 기록, 개인의 삶의 한 부분을 담은 기록을 다룬 책들이 그것이다.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남기고 모아보는 사람도 많다. 모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서비스에서는 “당신의 일상을 기록하세요”라는 카피라이팅과 소정의 경품을 내세우며 자사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블로그 외에도 트위터(현 ‘X’)¹⁾,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일상이나 추억을 남기고, 이를 “기록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나 요즘에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디오 형태의 블로그, 즉 ‘브이로그(Vlog)’도 유행이다. 문구 사이트에서는 자사 다이어리를 소개하며 “당신의 일상을 기록하세요”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기록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록에 대해 ‘내 일상이나 기억하고 싶은 것을 나중에 다시 꺼내볼 수 있게끔 글(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사진, 동영상 등의 매체에 남기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경찰서나 법정에 제출하거나, 업무상 행위를

1) 트위터 서비스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서비스명이 ‘X’로 바뀌었지만, 다수의 이용자들은 익숙한 ‘트위터’라는 명칭을 사용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라는 표기를 사용한다.

증빙하는 방향에 대해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사람들은 대체로 기록을 객관적인 진실 그 자체로 인식한다. 나 역시 이러한 용례의 기록에 더 익숙하다. 그러나 기록학에서 말하는 기록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기록학계, 기록 전문가 집단은 기록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KS X ISO 15489-1:2016, InterPARES Trust(2018)에서 정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기록은 ‘조직 또는 개인이 실제 활동을 수행하며 생산한 지적 개체이자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은 그 자체로 곧바로 증거나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Geoffrey Yeo(2007)가 제시한 ‘어포던스(affordances)’ 개념은 내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다가왔다. Yeo에 따르면 증거나 정보는 기록 그 자체가 아니라 기록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속성·기능·가치의 한 형태이다. 기억, 책임성, 권력의 정당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과 연속성에 대한 감각, 그리고 이러한 혜택의 시공간적 전달 역시 기록이 주는 어포던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중 역시 기록을 개인이 보유하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 생산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대중들은 보통 자신의 기억을 남기기 위해 기록한다고 말한 만큼, 기록이 제공하는 어포던스 중 하나인 기억에 초점을 맞춰 보자. 기억은 과거의 사건, 사람, 장소에 대한 표상을 유지하거나 재생하는 능력, 또는 그 결과로 형성된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장대환, 2019). 우리의 경험에 대한 흔적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떠올리는지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적 맥락에 깊이 얽혀 있다. 기억은 변화무쌍하고, 왜곡되거나 휘발되기도 쉽기 때문에 고정될 필요가 있다. 기억을 매체에 고정한 결과물이 기록이다. 그러나 모든 기억이 기록되지는 못한다. 기억은 기록을 생성하고, 기록은 다시 기억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기억, 그리고 기록은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이자 생산물이고, 그 생산과 활용 과정이 선형적이지 않고 순환적이다.

이상 살펴본 바, 기록은 ‘활동을 통해 생산된 지적 개체로, 증거, 정보, 그 외 다양한 가치를 제공해 주며 활동을 재현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자산’인

동시에, ‘불완전한 인간의 기억을 불완전하게 고정하여 재현하는 매체이자 도구’인 셈이다.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기록과 이를 선별하여 모은 아카이브는 이상적이고 무결하지 않은, 과거의 특정 측면을 재구성한 ‘구성된 텍스트’의 집합이다. 또한, 아카이브는 언제든지 재구성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설문원, 2025).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공기록 중심, 국가 아카이브 중심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은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기록이 아닌 사회 내 지배층의 입장을 옹호하는 기록을 보존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김명훈, 2014). 그렇다면 기록은 편파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정보원이고, 기록을 통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까? 하지만 사건을 경험하는 주체는 단일 개체가 아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다.

여기서 잠시 다시 나의 대학원 생활로 돌아가 보자. 나는 본래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 전자기록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의외로 나를 크게 매료시킨 것은 민간기록물에 관한 수업이었다. 앞서 내가 기록에 대한 완전무결함이 깨졌고, 기록은 단지 그 기록을 만들어낸 사람의 시각에서의 산물이라 서술하게 된 데는 이 수업의 영향도 있다. 이러한 관점이 있었기에 시민기록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자각하지 못했을 뿐, 이전부터 소위 말하는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소시민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좋아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쓰기 좋아하는 나와 민간기록 영역은 꽤나 운명적인 만남일지도 모른다. 먼 옛날 이 땅에 살았을 옥순이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밭도 갈고 물도 길고 빨래터에 나가기도 하고 가끔은 친구들과 놀며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최소한 나같이 산 사람에 대한 기록이 그 어디에서도, 한 줄도 전해지지 않는다면 좀 슬프지 않겠는가.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기억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민간 아카이빙이며, 기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회 정의이다”, “역사는 권력자만의 기록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산 김 모 씨, 이 모 씨, 박 모 씨도 하나의 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말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잊히지 않을 수 있는 눈짓이 되고, 의미 없는 존재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내게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이다. 관련된 논문을 읽으며, 나는 '시민기록'과 '정동'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민기록이 내가 앞에서 제기한 "기록이 편파적이라면,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과거를 보는 것이 과연 무의미한 일일까?"라는 문제에 대한 열쇠가 되었다.

시민기록은 시민들이 기록을 생산, 수집, 관리하는 권리를 가진 능동적인 주체임을 전제한 용어이며, 단순히 시민의 삶을 기록을 통해 드러내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공론장에서 토론할 수 있게끔 하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관점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기록의 태생적인 문제를, 보다 다양한 주체가 생산한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아카이브 내부의 정서적 에너지, 정동에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와 생존자들의 사라져가는 목소리를 다채롭게 담아내고, 이들의 피해 회복과 역사 구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기록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만든 아카이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정보를 보다 다양한 시선에서 제공하고, 국가 주도의 아카이브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이들의 삶과 기억, 정동까지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한 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에 주목하며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나는 기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건을 담은 한 조각의 파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기록의 증거적 가치나 기록의 4대 속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이 허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속성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적,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증빙해야만 할 때 더 중요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또 다양하게 담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록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러한 기록은 자신이 살았던 삶의 현장을 증명해내기 위한 기록이다. 애초에 공공기록과는 목적이 조금 다른 것이다. 비

록 그 진본성 등의 문제로 법적인 효력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살아온 삶을 주체로서, 당사자로서의 시선을 통해 기록한 것은 사회의 다양한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생긴다.

종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작동할 수 있다는 말처럼, 이러한 기록의 다양성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재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지역을 담은 아카이브나 마을 활동을 중심으로 한 마을아카이브만이 아닌, 다양한 주제, 다양한 주체의 시민 기록과 아카이브가 발생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 다만 그러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지, 이것을 연구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불을 지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2024년 12월 3일 22시경,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속보라고 올라온 뉴스 헤드라인을 보았지만 현실감이 없었다. 지금 2024년인데, 하는 생각만 들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공포와 당혹감이 엄습했다. 밤을 새가며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무사할지, 비상계엄 해제가 될 수 있을지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았다. 우여곡절 끝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국회 앞에서 “투표해, 빨리해”를 외친 후에도, 광화문, 남태령, 한강진에서도 무력감과 이상한 희망이 함께 교차했다.

돌이켜보면 위기도, 마음이 꺾이는 일도 너무 많았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나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1월이 끝나갈 무렵이었을까. 구독하고 있던 뉴스레터 “기록과 사회”에 투고된 니나의 기사(2025)를 보며 나의 눈이 번쩍 뜨였다.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자 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었다. 학계는 물론 재단법인, 출판사, 거기에 개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시선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곳을 기록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기록을 하려고 했을까? 사실 수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지 않은 계엄이고, 내란 행위임을 알리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위에 나서고, 대자보를 붙였던가. 더군다나 여러 사정으로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시위 현

장 라이브를 틀어두며 경찰의 진압을 감시하고자 했고, 인근 카페나 식당에 선결제를 해 두고, 특히나 남태령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난방버스를 보내고, 배달음식을 보내는 등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지원을 했다. 마음만 있다면, 방법은 많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왜 하필 기록하기를 택한 것일까?

나 역시 집회에 참석하며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며 나의 일상의 한 장면이 된 그 순간을 친구들과 나누기는 했지만, 이를 진지하게 기록으로 다루며 모아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다. 이런 순간들을 잘 모아 두면 좋은 날이 오게 된다면 나중에 기념 용도나 후세에 전달할 용도로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행동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행동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기록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웠던 것일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록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남들이 하지 않으니 자신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을 추적하기 쉬운 형태로 이런 흔적을 남기는 일이 위험할 텐데도 왜 기록하는 형태로 연대했을까? 이렇게 기록해서 뭘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걸까? 그들이 생각하는 기록의 역할은 뭘까? 그리고, 만일 내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알고 싶었다.

나는 ‘남태령 아카이빙 심포지엄: 12·3 비상계엄, 그리고 ‘남태령’을 기록하다’(이하 ‘남포지엄’)에 참석하였다. 남포지엄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는 아카이브를 구축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들의 아카이브는 노션(Notion)을 이용하여 구축한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물 모음집, 구술채록집, 동영상 모음, 소셜 미디어 기록 아카이브 등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기록학적 관점에서 아카이브라고 부를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발로 뛰어 모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활동과 생각을 담은 기록들이 모인 보물상자였을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아카이브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웬지……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았어요.”. 그들을 부추긴 무의식 속의 추동은 무엇일까? 그

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로 움직이려고 했을까? 왜 ‘기록’이었을까? 나는 기록인으로서 이렇게 직접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

나는 알고 싶었다. 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록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기록이 무엇이었길래 왜 굳이 기록을 택한 걸까? 나아가, 사회적 사건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기록한 사례가 기록학적 관점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연구방법론은, 인간의 경험에서 통찰을 이끌어내는 내러티브 탐구였다. 이 연구는 여기서 출발한다.

제 2 절 연구자의 위치와 연구 윤리

본 연구에서 나는 단순히 시민 기록 생산자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외부의 연구자가 아니다. 나는 기록관리학을 전공하며 기록의 사회적 의미와 윤리적 책임에 대해 학습해 온 연구자이자, 동시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동일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경험한 시민이다. 이러한 이중적 위치는 본 연구의 출발점이자 전제이며, 연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기록학적 지식과 제도적 언어를 가진 연구자라는 점에서 일정한 권력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동시에 그들과 유사한 불안과 분노, 무력감을 공유한 동시대의 시민으로서 깊은 공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권력과 공감의 교차 지점은 내러티브 탐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긴장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거하거나 은폐하기보다 연구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위치에 서기보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민 기록은 정치적·사회적 맥락과 긴밀히 연결된 민감한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감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면담과 텍스트 재구성 과정에서 반복적인 확인과 협의의 거쳤으며, 연구 결과물의 공개 방식 또한 참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내러티브 탐구에서 요구되는 관계적 윤리와 기록관리학에서 강조하는 정동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다.

기록관리학 연구자로서 나는 시민 기록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나 수집의 객체로 다루지 않는다. 시민 기록은 시민이 자신의 삶과 사회적 사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을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행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 기록 생산자를 연구의 객체가 아닌 기록의 주체로 위치시키며, 기록관리학이 이러한 주체성을 어떻게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위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자 위치성에 대한 인식은 본 연구 전반의 해석과 서술 방식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

제 2 장 내러티브 탐구

: 용감한 시민 기록가들을 만나기에 앞서

제 1 절 내러티브 탐구란 무엇인가

시민 기록가의 경험을 들여다보기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은 내러티브 탐구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를 통해 표현되는 인간 경험과 그 안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의미를 도출하고, 나아가 삶의 이해로 나아가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접근은 개별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story)’로 파악하고, 그 경험이 개인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탐구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다수 사례의 일반화보다 특정 참여자의 경험이 갖는 의미를 실제 맥락 안에서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홍영숙, 2015).

그러나 인간의 경험이 ‘이야기’로 제시되는 방식은 사건을 어떤 언어로 구성하고 어떤 ‘장르’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야기 속 ‘진실’ 역시 픽진성, 즉 서사 속 요소들이 현실과 유사하게 느껴지며 진실에 가까워 보이는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이야기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시간 안에서 사건을 재배열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욕망과 가치 등 의도를 지닌 존재로 제시되며, 이야기는 그 자체로 고맥락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Bruner, 1991). 그렇다면 이러한 주관성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왜 연구의 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니는가?

이야기는 현실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개별의 이야기는 축적되며 하나의 역사로 연결된다(Bruner, 1991).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이호신, 2015). Riessman(2000)은 내러티브가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정체성이 표현되고 해석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고 본다. 내러티브 탐구의 의의는 결과의 일반화 자체보다, 형상화된 이야기가 독자에게 성찰의 여백을

제공하고 그 성찰이 독자의 삶과 인식에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에 있다(이호신, 2012).

내러티브 탐구의 이론적 토대는 Dewey(1938)의 경험 이론에 있다. Dewey에 따르면 경험은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차원뿐 아니라 그가 맺고 있는 관계, 사회적 맥락,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홍영숙, 2015).

[표 2-1]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지점과 Dewey의 경험 이론과의 매핑

|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지점 | Dewey의 경험 이론과의 매핑 | 특징 |
|----------------------|------------------------|--|
| 시간성 (Temporality) | 계속성 (Continu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은 다른 경험을 통해 생성되고, 이 경험은 다시 또 다른 경험으로 이끄는 역할을 함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경험을 형성하고, 현재의 경험은 미래의 경험에 영향을 미침 |
| 사회성 (Sociality) | 상호작용성 (Intera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은 인간 자신의 내재적 조건과 외재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됨 즉, 경험은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 간의 상호 교류임 |
| 장소 (Place) | 상황 (Situ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인간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 살아감 처해진 상황과 위치한 장소에 따라 개별 인간이 구성하는 경험은 달라짐 |

내러티브 탐구의 공간을 구체화하는 개념으로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을 제시한다. 이 탐구 공간은 시간성(temporality), 사회성(개인적·사회적 상황, sociality), 장소(place)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

시간성 차원은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성을 전제로,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과 사건, 장소를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는 Dewey가 제시한 경험의 계속성(continuity) 개념과 맞닿아 있다. 사회성 차원은 개인의 감정, 기질, 신념과 같은 내재적 조건과 사회적 환

경이라는 외재적 조건, 그리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 역시 Dewey의 경험 개념 중 상호작용성(interaction)과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장소 차원은 탐구와 사건이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장소가 인간의 경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연구자는 이 세 차원이 통합적으로 작용함을 염두에 두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탐구해야 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홍영숙, 2019).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삶을 살아가고(living), 그 삶을 이야기하며(telling), 이야기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하고(retelling), 그 과정에서 변화한 삶을 다시 살아내는(reliving) 일련의 순환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한 장소 또는 일련의 장소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협력적 탐구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홍영숙, 2015; 염지숙, 2020).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내러티브의 외부에 위치한 관찰자가 아니라, 연구를 통해 자신의 삶 또한 재구성하게 되는 연구 안의 존재로 자리한다. 연구자의 삶과 연구 참여자의 삶은 내러티브를 매개로 나란히 놓이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내러티브 탐구는 관계적 윤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Clandinin, 2015). 관계적 윤리란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개방하고, 연구자와 참여자가 서로의 취약성과 한계를 인식하며 이를 존중하는 관계적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염지숙, 2020).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는 내러티브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재구성하는 연구 안의 존재이다. 연구자의 삶과 연구 참여자의 삶은 내러티브를 통해 나란히 놓이며 서로가 서로의 일부분이 된다. 그 결과 내러티브 탐구는 관계적 윤리를 요구한다(Clandinin, 2015). 그 결과 연구자는 자신을 연구 참여자에게 전적으로 열어 보이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모두 자신과 상대의 취약성과 단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적 공간으로 거듭난다(염지숙, 2020).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관계적 윤리를 존중하며,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뿐 아니라 연구자 자신과 연구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요구받는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삶의 맥락 속에서 존중하려는 연구자의 인식적·윤리적 태

도를 포함한다(염지숙, 2009).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내러티브 탐구는 교육학을 비롯해 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기록관리학의 맥락에서 내러티브 탐구는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하는 주체들이 어떠한 경험과 인식, 의미 체계를 바탕으로 기록 행위에 참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분석 틀로 기능한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지닌 의도성과 맥락, 그리고 그것이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한 핵심 이유이다. 본 연구는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 활동에 나서게 된 동기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시민들이 기록을 선택하게 된 의도와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기록 행위를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삶과 인식이 투영된 주체적 ‘이야기’로 바라보고자 한다.

제 2 절 내러티브 탐구의 일반적 절차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삶을 이야기하고(telling), 그 이야기를 다시 구성하며(retelling), 그 과정에서 변화한 삶을 다시 살아내는(reliving) 순환적이고 반성적인 탐구 과정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뿐 아니라 자신의 삶 또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는 자전적 내러티브 탐구에서 시작되며, 연구자는 연구 전·중·후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자 역시 내러티브 탐구의 일부로서 연구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이다(홍영숙, 2019).

자전적 내러티브 탐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주제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보다 심층적이고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홍영숙, 2020; 홍명아, 2020).

내러티브 탐구는 그 특성상 연구 결과를 단일한 해답으로 귀결시키기보다는, 의미가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 이에 따라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연구 문제’ 대신 ‘연구 퍼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홍영숙, 2020). 연구 퍼즐은 탐색과 재탐색의 반복을 전제로 하며, 경험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관점을 포함한다(Clandinin, 2015). 따라서 탐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도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어떤 의미로 구성될지는 확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열린 상태 자체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홍영숙, 2019).

[표 2-2] 내러티브 탐구의 일반적 절차

| 연구 단계 | 수행 내용 |
|----------|---|
| 현장에 들어가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섭외 •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안내 및 동의 확보 |
| 현장텍스트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참여자와 관계 맺고 이야기 확보 (면담, 참여관찰법 등 활용) • 면담 녹취록 작성 및 연구 참여자의 확인 절차 • 면담 외 현장노트, 가정사, 문서, 사진, 기억상자, 기타 가공물 형태의 현장텍스트 확보 |
| 현장텍스트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텍스트를 여러 차례 읽고, 연구텍스트로 재구성할 방법 고찰 • 중간 분석이 완료된 현장 텍스트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확인 절차 |
| 연구텍스트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재구성 •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 선택 • 연구 참여자의 최종 확인 절차 |

[표 2-2]처럼 내러티브 탐구는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장 연구를 위한 준비 과정인 ‘현장에 들어가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고,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이호신, 2012). 연구에 대한 안내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관계적 윤리에 입각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관계 설정과 ‘현장’이라는 탐구 공간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홍영숙, 2019).

두 번째 단계는 ‘현장텍스트 구성’이다. 현장텍스트는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개념으로,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자료가 연구자와 연

구 참여자의 경험이 반영된 경험적이고 간주관적인 텍스트임을 강조한다. 현장텍스트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관계 속에서 공동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며,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측면을 드러내고 보여준다(Clandinin, 2015).

현장텍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면담과 참여관찰이 활용된다(홍영숙, 2019). 현장텍스트는 연구면담, 현장노트, 가정사, 문서, 사진, 기억상자, 기타 개인적·가족적·사회적 가공물 등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홍명아, 2020). 이 단계는 연구에 활용될 자료를 현장에서 수집하는 과정으로,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와 더불어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조 자료를 함께 수집한다. 이때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되며, 이후 녹취록을 작성한다(이호신, 2012).

세 번째 단계는 ‘현장텍스트 분석’이다. 이 단계에서는 수집된 현장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며, 이를 연구텍스트로 재구성하기 위한 숙고의 과정을 거친다(이호신, 2012).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현장텍스트를 여러 차례 반복해 읽으며,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인 시간성, 사회성, 장소 차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경험의 의미 속으로 보다 깊이 이동하게 된다(홍영숙, 2019). 현장텍스트 분석은 ‘다시 말한’ 이야기들을 재현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게 하며,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과 최종 연구텍스트의 여러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Clandinin, 2015).

마지막 단계는 ‘연구텍스트 작성’이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적절한 형식의 연구텍스트로 재구성한다. 작성된 내러티브 텍스트는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전달되어 검토와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호신, 2012).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내러티브 패턴과 줄거리, 경험의 변화 지점 등을 탐색하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과 연결하여 연구텍스트를 구성한다(염지숙, 2009).

연구텍스트는 독자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재현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경험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 방식과 삶의 실천을 다시 생각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Clandinin,

2015). 이러한 점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목적은 이야기화된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독자가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경험을 다시 성찰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홍영숙, 2019). 이때, 연구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협상이 중요하고, 연구 텍스트 형태는 그들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명아, 202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경험을 나누며 소통하는 과정이자,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는 협력적 탐구 과정이다. 이 과정은 순환적이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삶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이야기는 변화한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단순히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수집하는 태도보다, 연구자가 스스로를 기꺼이 드러내고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보다 깊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유대감을 형성하며, 내러티브 탐구에서 요구되는 관계적 윤리를 실천하는 기반이 된다.

제 3 절 연구의 발자취

1장에서 나는 내러티브 연구자로서 나의 자전적 내러티브를 설명하였다. 이 자전적 내러티브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소통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관계를 설정하고 ‘현장’이라는 탐구 공간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나는 이 연구를 시작하기까지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전적 내러티브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 기록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록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들이 인식하는 기록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사건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기록한 사례가 기록학적 관점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한다.

본 연구에 적용한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는 [표 2-3]에 제시하였다.

[표 2-3] 본 연구에서의 내러티브 탐구 절차

| 연구 단계 | 수행 내용 및 방법 |
|----------|---|
| 현장에 들어가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섭외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안내 및 동의 확보 |
| 현장텍스트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참여자와 관계 맺고 이야기 확보(반구조화, 개방형 면담) 면담 녹음과 동시에 면담 상황을 메모하여 언어적 표현 외에도 표정, 말투, 분위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 확보 면담 녹취록 작성 및 연구 참여자의 확인 절차 녹음 파일, 녹취록, 현장노트, 웹 문서, 사진, 단시간동안의 현장 참여 활동 형태의 현장텍스트 확보 |
| 현장텍스트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텍스트를 여러 차례 읽고, 연구텍스트로 재구성할 방법 고찰 Polkinghorne(1995)의 내러티브적 분석법을 활용하여 어떻게, 왜 연구 참여자들이 이러한 경험 속에서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지 탐구 중간 분석이 완료된 현장 텍스트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확인 절차 |
| 연구텍스트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재구성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 선택 : 민이현(수필), 민정아(소설), 민영주(희곡) 연구 참여자의 최종 확인 절차 연구의 신뢰도 확보 |

1) 현장에 들어가기

가) 연구 참여자 선정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단순히 면담에 응하는 대상이 아니라,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공동 저자의 위치에 놓인다. 따라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닌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상, 이 연구는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관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이호신,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접촉에 앞서 참여자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록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비록 직관적으로 ‘기록’으로 인식되지 않는 구술채록집의 형태라 하더라도, 연구 퍼즐에 부합하고 기록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면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자의

판단에 기반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례, 혹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판단표집 방법을 활용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표 2-4] 연구 참여자

| 이름 | 기록 및 아카이빙 대상과 방법 | 상호작용 기간 | 인터뷰 회수 | 장소 |
|-----|---|-----------------------|-----------|-------------------------------|
| 민이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 워킹그룹 팀원으로 활동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시민 제보를 통한 집회 현장과 이색시위도구 기록 수집 • 노선을 활용해 제작한 아카이브 팀 웹페이지에 업로드 | 2025.05. ~2025.10. | 3회 | 교내 그룹 회의실 |
| 민정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기록 활동 (간접적 도움 있음) • 집회 현장에 참석한 ‘덕후’들의 경험 인터뷰 및 정리 • 오마이뉴스, 브런치 스토리에 인터뷰 내용 투고 및 구술채록집 출간 | 2025.05. ~2025.10. | 3회 | 독립서점 겸 카페, 온라인 화상 회의 |
| 민영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기록 활동 (기록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지인들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음) • 소셜 미디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시민 제보를 통한 집회 현장 기록 수집 • 트위터 계정 ‘남태령 기억저장소’ 운영 및 구술채록집 준비 중 | 2025.09. ~2025.10. | 2회 | 카페 |

〈표 2-4〉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총 세 명이다. 참여자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록의 생산과 아카이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민이현은 기록학 전공자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통해 집회 기록 컬렉션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민정아는 집회 참여자들을 인터뷰하여 기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모아 구술채록집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영주는 남태령 투쟁을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 게시물, 영상 자료, 구술 기록 등을 수집·정리하는 시민 아카이빙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민이현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모 대학 기록학 석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

생이다. 사려깊은 미소가 인상적인 민이현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 진행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매주 학과 모임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15분 스피치’의 진행자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 준비로 바쁠 터인데, 같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는 매우 성심껏 답변했고, 질문지를 보고 미리 생각하고 메모해 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현장,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현장, 박근혜 퇴진 집회 등 다양한 사회운동 및 집회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수집한 사진 기록을 메일로 보내주었다. 이 외에도 그는 면담 중 평소 모으던 ‘짤’²⁾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같은 기록인으로서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며, 단순히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상으로 나 또한 기록인으로서, 또 연구자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다.

민정아는 대전에 거주 중인 50대 후반 여성으로, 에세이를 시작으로 소설이나 동화를 쓰고 브런치 스토리, 오마이뉴스 등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쓴다. 작가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민정아는 굳이 그러한 틀에 갇히고 싶어하지 않았다. 한편 민정아는 락밴드 ‘국카스텐’을 좋아하는 ‘덕후’³⁾이기도 하다. 그러한 정체성은 약 10년간 마을운동, 학부모운동을 해온 경험과 함께 민정아를 기록 활동으로 이끄는 데 영향을 주었다. 민정아는 부드럽고 사려깊은 미소 뒤에 숨은 열정과 도전정신이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인터뷰를 위해 대전으로 가겠다고 연락했을 때, 그는 대전 동구의 독립서점 겸 카페를 인터뷰 장소로 추천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점심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오는 것이 아니냐며, 대전 유명 빵집의 샌드위치를 대접해 주었다. 그 배려에 따뜻함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주제에 대한 일종의 ‘상호 인터뷰’를 했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동안에도 인터뷰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미처 나누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헤어지기 직전, 민정아는 앞으로의 인생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용기를 주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여운이 남아, 대전을 둘러보다 민정아가 말한 대전의 명소, ‘은하수네거리’에 직접 방문하여 집회 모습을 상상했다. 그 후로도 그와의 인터뷰와 그의 저서 <팬텀에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심정,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진이다.

3) 일본어 ‘오타쿠オタク’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무언가에 심취한 사람을 의미한다.

서 자유로>에서 다시금 만난 민정아의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시선은 연구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구술채록집에 깊은 애정을 보이며 “괜찮다면 논문에 직접 드러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정아와의 인터뷰는 귀중한 연구자료임과 동시에, 나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민영주는 모 지역 D시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 여성으로, 서울에서 철학과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가업을 잇기 위해 귀농하였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기도 했던 민영주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부모의 고향, 농업에 힘을 쏟는 와중에도 자신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입장을 가진 청년 농업인들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다. 현재 민영주는 농민들을 대표하며 농업 관련 정책 입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주는 담담하고 진솔하면서도 친근한 태도를 보이며 인터뷰를 이어갔다. 민영주는 인터뷰 말미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결과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면서 생긴 본인의 특성을 ‘중간자적 특성’이라고 표현했다. 비록 박쥐같다고 불리며 박해받는 특성이지만, 민영주는 이러한 특성이야말로 민주사회를 위해 필요한 화합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웃었다. 민영주 또한 석사 과정을 이미 마친 한 사람의 학자로서 귀중한 조언을 전해주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당당한 태도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 수행을 위한 인터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활용 방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하였다. 녹취록 작성과 연구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자신의 발화가 왜곡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인터뷰 당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연구 참여자를 넘어 공동 저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와의 접촉 및 협의 과정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심포지엄 「남태령 아카이빙 심포지엄: 12·3 비상계엄, 그리고 ‘남태령’을 기록하다」(이하 ‘남포지엄’)에서 처음 만났다. 해당 심포지엄에서 연구자는 본인이 연구자임을 밝히고, 추후 연구와 관련하여 연

락을 취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카이빙 주체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 중 두 명은 직접 발표 세션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의 발표 내용을 청취하며 연구 맥락을 파악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대략적인 면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설명과 질문지를 이메일로 사전 발송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함께 송부하여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목적과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참여자의 경험과 이야기가 연구텍스트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면담 진행 중과 면담 종료 이후, 연구 참여자가 현장텍스트와 연구텍스트를 확인하고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연구 퍼즐이 변화하거나 확장되어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지속 여부에 대한 동의를 다시 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의 세부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과정 중 연구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록이 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하며 연구 참여자들의 작업에 협력하였다.

2) 현장텍스트 구성

내러티브 탐구에서 현장텍스트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반영하는 경험적이고 간주관적인 텍스트로서 의미를 갖는다. 현장텍스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 Clandinin과 Connelly는 내러티브 탐구의 방법으로 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듣고 대화하는 것, 즉 면담과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살고 말할 때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 즉 관찰을 제시한다(Clandinin, 2015).

본 연구에서는 면담법을 중심으로 현장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들은 각자의 사회적 활동을 분주하게 수행하는 상황이라 그들의 일상에 장기간 밀착하는 참여관찰법은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면담은 반구조적임과 동시에 피면담자가 조사 목적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공개적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앞서 설명했듯 질문지를 미리 이메일로 송부하여 연구 참여자가 면담이 시작되기 전 답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면담 중 답변에 대한 맥락이나 세부 사항을 파악하거나, 이 외에도 면담 흐름에 따라 즉흥적으로 떠오른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하여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

면담은 2025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3회차, 회차당 60분에서 80분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배분하였으나, 연구 참여자가 면담을 위해 3회 분량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밝힌 경우 면담을 2회로 조정하고 면담 시간을 회차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렸다.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 1인당 2회에서 3회 가량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음성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면담 질문은 면담 회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회차별 질문 범주는 [표 2-5]부터 [표 2-7]에 제시하였다.

[표 2-5] 제1차 면담의 질문 범주

| 범주 | 하위 범주 | 질문 내용 |
|------------------------|---------|--|
|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삶의 모습 | 정체성과 일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삶의 방식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
| | 사회적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시민운동, 집회, 서명운동과 같은 활동 참여경험 |
| | 기록 습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아카이브 작업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거나, 참여하던 기록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여부 |
| 기록 동기 | 심적 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 활동을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및 수집한 기록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 생산 및 수집한 기록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

제1차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생애사와 자아상,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형성된 기록 계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표 2-6] 제2차 면담의 질문 범주

| 범주 | 하위 범주 | 질문 내용 |
|----------|-----------------|---|
| 기록 활동 과정 | 기록물 수집 및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수집 기준 • 기록물 수집 방법 • 결과물 서비스 방식 |
| | 기록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수집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 •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자원 • 다른 시민에게서 기록을 기증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 |
| | 기록 활동 이후의 감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활동이 본인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질문 • 작업 중 힘들었던 순간과 희망을 느낀 순간 |
| | 앞으로의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서비스 계획 • 아카이브를 만들었다면, 운영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운영 능력이 있는 단체에게 아카이브를 양도할 의향 여부 |

제2차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기록 활동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인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표 2-7] 제3차 면담의 질문 범주

| 범주 | 하위 범주 | 질문 내용 |
|--------------------|------------------------|--|
| 대선 이후, 기록 활동을 돌아보며 | 위험한 상황, 두려움 속에서의 기록 실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물리적으로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록 활동을 계속하기로 한 이유 • 파면이 확정되기 전 기록 활동을 이어가며 들었던 생각과 감정 |
| | 대선 국면과 기록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 결과에 따른 본인의 기록 활동 방향과 존속 가능성 • 정권 교체 이후 시민 기록가로서 느끼는 감정의 변화 • 정권 교체 이후 앞으로의 계획 |

| | | |
|---------------------------|--------------|---|
| 시민 기록의 역할 | 다른 시민과의 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활동을 하며 만난 다른 시민과 연대감을 느낀 경험 • 기록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끌어낸 삶의 변화 • 시민 기록 활동이 다른 시민들에게 준 영향 |
| | 시민 기록과 민주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 대선 국면까지 경험한 시민들의 경험과 감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시민들이 모은 기록과 아카이브가 민주주의에 주는 의미 • 미래 세대가 시민기록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사회적 연대를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
| 비상계엄 사태 및 기록 활동 전후의 내적 변화 | 가치관 및 정체성 변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엄 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변화하였는지 여부 • 시민 기록가로서의 경험이 자신을 인식하는데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질문 •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맡고 싶은 사회적 역할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

제3차 면담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 실천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시민 기록이 사회에 가지는 의미를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탐색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위험한 상황, 두려움 속에서의 기록 실천’과 관련된 질문은 연구 참여자에게 불편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면담 과정 중 언제든지 면담을 중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는 언어적 표현뿐 아니라 눈빛, 표정, 말투, 동작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기록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면담 메모를 작성하였다. 녹음된 파일은 태블릿 PC의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1차적으로 텍스트화한 뒤, 음성 파일과 대조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면담 메모를 반영하여 녹취문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녹취문은 현장텍스트 분석 이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공유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여부와 연구텍스트 전환 과정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각 면담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동 중 휴대전화 메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5줄 내외의 연구일지를 작성하였다. 연구일지에는 면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한 발화,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내용, 그리고 이후 면담 진행 시 유의할 점 등을 기록하였다.

직접적인 면담 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기록 실천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발표에 참여한 공개 행사에 참석하거나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온라인 게시글과 사진, 동영상 자료를 검토하였다. 특히 민이현이 소속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15분 스피치’에 참석하여 아카이브 워킹그룹 구성원들의 발표와 토론을 청취하였다. 해당 발표에서는 각 기록 컬렉션의 수집 과정과 구성 방식, 기록 활동 중 겪은 어려움과 감상이 공유되었으며, 연구자는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를 보완하였다. 또한, 외부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한 발표 세션을 통해 민영주의 발표를 청취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연구 참여자의 개별 내러티브를 보완하고,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정동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3) 현장텍스트 분석

현장텍스트 분석은 수집된 텍스트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으며,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의 구성 요소인 시간성, 사회성, 장소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이 세 차원은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 속에서 분리되어 존재하기보다는 상호 얽혀 작동하므로, 분석 과정에서는 특정 차원을 고정하기보다 경험의 흐름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살펴보았다(홍영숙, 2019).

Polkinghorne(1995)는 내러티브 탐구에서 활용되는 분석 방식을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analysis of narratives)’과 ‘내러티브적 분석(narrative analysis)’으로 구분하였다.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은 이야기로부터 주제와 범주를 도출하는 패러다임적 분석 방식으로, 여러 사례 간의 공통점과 유형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반면 내러티브적 분석은 사건과 행위 자체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개별 사건들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하고 플롯을 형성함으

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시되는 이야기는 연구자가 사건들을 선택하고 배열하여 구성한 분석 결과물이다.

본 연구는 시민들이 특정한 사회적 사건 속에서 기록 활동을 수행하게 된 맥락과 의미를 개별적인 경험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므로, Polkinghorne(1995)가 제시한 내러티브적 분석 방법을 분석 틀로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발화와 경험을 사건 단위로 검토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며, 각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서사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어떻게 이러한 기록 실천이 가능했는가’, ‘왜 기록이 선택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주목하며 분석을 진행하였다.

내러티브적 분석은 행위 간의 공통된 범주를 도출하기보다, 각 경험이 지니는 특수성과 맥락에 주목한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정체성이 시간의 흐름과 상황 변화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으며(Riessman, 2000), 사건들을 연결하는 플롯 구성 과정에서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요소는 분석의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개별 시민 기록가의 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그 경험이 어떠한 의미로 조직되는지를 서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4) 연구텍스트 작성

연구텍스트를 작성할 때에는 수집된 현장텍스트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Clandinin과 Connelly가 제시한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시간성, 사회성, 장소)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가 왜곡되거나 과도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표현과 말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연구 퍼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의 기록 실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해석적으로 정리하였다(이호신, 2012).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기록과 기록 행위, 나아가 기억하는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텍스트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과거에 기록과 기억에 대해 가졌던 인식, 그러한 인식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형성된 집회 광장이라는 공간이 그들의 기록 실천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다른 장소가 아닌 광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광장을 기록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맥락에 주목하여, 기록 실천으로 이어지는 내러티브의 연속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민이현의 내러티브는 수필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민이현의 경험은 대학 입학 이전, 대학 생활, 대학원 과정 등 비교적 분명한 생애 단계로 구분될 수 있었으며, 각 단계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수필 형식은 참여자의 개별적 경험과 감상을 비교적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이므로, 면담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과 서술 방식을 가능한 한 유지하여 연구텍스트를 구성하였다.

민정아의 내러티브는 소설 형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민정아는 기록 실천의 동기로서 강한 충동과 의무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면담 과정에서 비교적 생동감 있고 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였다. 민정아는 기록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심리적 갈등과 변화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사건의 흐름과 내면의 변화를 서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소설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소설 형식을 사용함에 있어 개연성을 위한 장치 이상으로 민정아의 경험을 훼손하는 허구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며, 연구텍스트는 민정아의 경험과 인식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민영주의 내러티브는 독백을 전제로 한 희곡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민영주는 발표와 인터뷰 경험이 풍부하였으며, 당당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며, 남태령 투쟁 현장의 현장성과 참여자의 발화를 그대로 드러내는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자의 발화가 연구텍스트에서 비교적 직접 재현될 수 있도록 희곡 형식을 선택하였다.

제 4 절 연구의 신뢰도 확보

내러티브 탐구는 개별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 질적 연구방법으로, 자연주의와 해석주의,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그 토대를 둔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신뢰도는 통계적 일반화 가능성보다는 연구 과정의 투명성, 해석의 타당성, 그리고 연구 결과가 경험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하는지에 의해 확보된다(심준섭, 2008). 이에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가능한 한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가 면담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과 말투를 연구텍스트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기록 활동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맥락과 경험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심층 기술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단편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넘어, 경험이 형성된 맥락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삼각측량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였다. 면담 자료 외에도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사진 자료, 소셜 미디어 게시물, 관련 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발화가 놓인 맥락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이호신, 2012).

셋째,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를 수행하였다. 녹취록과 연구텍스트를 연구 참여자에게 공유하여, 해당 내용이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윤리적 고려를 병행하였다.

넷째, 연구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Clandinin(2015)은 내러티브 탐구의 신뢰성을 개인적 정당성, 실제적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의 세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인적 정당성은 이 연구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에게 왜 의미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실제적 정당성은 연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변화나 실천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회적 정당성은 이 연구가 이론적 이해를 확장하거나 사회적으로 더 정의로운 상황을 만드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이다(홍영숙, 2015).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시민 기록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록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들이 인식하는 기록의 의

미를 탐구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정당성을 가진다. 또한, 기존의 기관 주도형 시민 기록 사례가 아닌, 개별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록 활동과 아카이브 구축에 나선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기록학에서 시민 기록과 아카이브 액티비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실제적 정당성을 가진다. 나아가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기록을 통해 민주주의와 일상을 지키고자 한 경험을 조명함으로써, 기록과 시민성, 민주주의의 관계를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다.

제 3 장 12·3의 밤, 기록하는 마음들

제 1 절 두 번은 후회하기 싫어서

〈역사의 한가운데에 살아오며〉

학교를 다니다 보면,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럼 나는 주저없이 ‘역사’라고 답한다. 그렇게 나는 모 대학 국사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생활과 당시의 경험들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여러모로 큰 역할을 했다.

내 대학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학생운동’이다. 2014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2014년 4월 16일, 동기 한 명과 학교 앞 건물 2층에 있는 식당에서 칼국수와 물만두를 먹고 있었다. 가게 TV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뉴스가 송출되었다. 전원 구조. 그 문구를 보고 안도했다. 해가 지고서야 진상을 알았다. 전원 구조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게 몇 주에 걸쳐 사망자가 늘어갔다. 그 사건은 나에게 강한 충격과 상실감을 남겼고, 그때의 무력감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다. 2014년 2학기, 10월 마지막 주에 열린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에 친구와 함께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후 2015년 4월 11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가 내 첫 집회였다.

집회에 나가기 전에도 유가족들의 활동 기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문제의식으로 바뀌었다. ‘인재’였다. “이 사건의 원인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내가 저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살아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을 스쳤고,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다. 사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고,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함께하는 이름도 모르는 동지들이 있었기에, 나 또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또한,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박근혜 탄핵 집회에 참여하며 보고 느낀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것 같다.

한편 내가 한창 운동권으로서 활동할 때는 페미니즘 리부트의 물결이 일던 시기이기도 했다. 나는 언제부턴가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페미니즘을 내면화했다. 남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혹시라도 내가 성차별적인 것을 배우고 내면화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꾸준히 이어가며 나의 의견과 입장을 정립해나갔다. 일상 속에서 운동권 정신을 실천한다고나 할까. 말하자면 ‘내적 데모’이다.

이 외에도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나는 사진을 찍거나, 인터넷에서 ‘میم’⁴⁾과 ‘짤’⁵⁾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행위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밈과 짤도 당대의 감정과 사회적 맥락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비공식적 기록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짤을 모으다 보면, 어떤 짤들은 만들어지고 쓰이는 당시에는 재미있고 마는 것이지만, 종종 ‘이건 길게 봐야겠다’ 내지 ‘몇 년 뒤에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짤이 미래에 진짜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각 중 하나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짤이 당시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면 풍자, 혹은 비난 등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식이다. 코로나 19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언론들이 몇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런 언론들을 풍자하는 짤을 쓰기 시작했다.

4) 모방을 통해 전해지는 문화적 요소. 본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쓰이기 시작한 용어이나, 지금은 온라인 상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유행을 일컫는 말로 자주 쓰인다.

5) 이미지 형식으로 유통되는 인터넷 밈의 일종.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이미지가 없으면 삭제되기 쉬워서 ‘짤림 방지’ 용도로 이미지를 첨부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짤방’, ‘짤’로 점점 호칭이 줄어들었다. 지금은 게시판 외에도 소셜 미디어, 메신저 등에서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그림 3-1] 짤: 이 나라는 망한다!(굽시니스트, 2017)

시간이 지나면 이 짤을 보며 그 의미와 맥락까지 회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새로운 재미이다. 나는 어쩌면 기록학을 접하기 이전부터 짤을 통해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만약 박사과정을 하게 된다면 약 20년간 모아온 짤을 활용해 연구를 해 볼 마음도 있다. 나의 이러한 경험은, 비공식적 이미지 자료 역시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축적하는 기록이 될 수 있음을 무의식 중 느낀 계기였다.

이러한 이력과 별개로, 내가 직접적으로 기록학을 접하게 된 계기는 국사학과에서 진행한 특강이었다. 미래에 대해 고민하던 중, 4학년 2학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사 특강 2’를 수강했다. 이 특강은 기록학에 대한 수업이었다. 특히나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강의에서 소개된,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사례, 4.16 기억저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 내가 공부한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쌓이며 만들어지는 것이었구나. 강의를 듣다 보니 기록학에 흥미가 생겼다. 그렇게 나는 기록학과 진학을 결심했다.

기록학을 공부하며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것이 따로 있었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기록학을 처음 배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다방면으로 개설된 강의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민간기록물관리 수업이었다.

내가 민간기록물관리에 관심을 가진 것은, 대학 시절의 운동 경험 때문이다. 운동을 하며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났고, 그들의 활동이 제대로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그리고, 나는 역사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기록을 잘 남기고 전달해서 역사에 포함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그것이 공공역사라는 분야에 맞닿게 된다는 것은 꽤 나중에 알게 되었다. 공공역사는 강의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역사활동임에도 기록학, 역사학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공공역사의 개념이 더 많이 퍼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관리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남길 수 있게 돕고 싶었다. 역사 서술에서 배제되어 온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공공역사와 기록관리의 상호보완성에 주목하여, 연구 주제도 ‘공공역사 실천을 위한 기록관리 교육연구’로 설정했다. 그렇게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던 때였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5분. 그 순간만 해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2시 27분,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2024년에 계엄령이라고?” 이러한 반응들이 지배적이었다. 당혹스러운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거였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새벽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계엄이 해제되었다. 그 순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계엄의 밤. 그 직전까지도 나는 논문을 쓰고, 학과 업무를 돕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또 가끔은 친구를 만나 놀거나 게임을 하며 지내기도 하는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시위는 나가겠지만, 그것 말고도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때, 교수님의 연락이 도착했다.

“이현 씨, 우리가 이러한 시국에 맞춰, 지하조직을 만들어볼까 해요.”

조금은 장난스러운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무언가를 직감했다. 그리고 교수님은 방금과는 달리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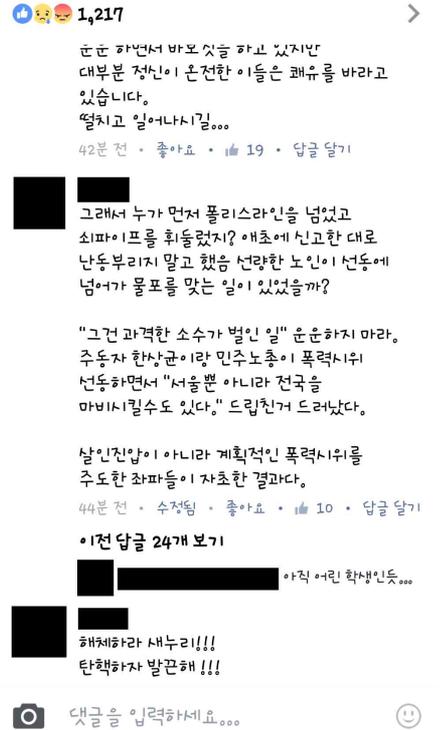
“우리 과 선생님들과 모여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아카이빙하려고 해요. 9가지의 주제를 만들 건데, 이현 씨가 집회 및 시민기록을 맡아 줬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답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기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기록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기록인의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기록학과 내에 이 비상계엄 사태를 기록하기 위한 워킹그룹이 발족되었다. 그리고 내 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의 기억들이었다.

<두 번 후회하지는 않으리>

2016년 가을 박근혜 탄핵 집회는 여러모로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집회이다. 나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질 당시 그 옆에 있었다. 20 미터 내지 30 미터. 한순간에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당시에는 누군가 쓰러졌다는 사실만을 알았지, 그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 사람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는 사실 정도를 알고, 구급차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보았다. 그리고 구급차가 그 사람을 실어간 후, 구급차 안쪽까지 물대포를 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기록하지 못했다”. 나중에서야 그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라는 것을 알았다. 더군다나 나중에는 그가 난동을 부려 물대포를 맞은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 돌았다.



[그림 3-2] 백남기 농민 관련 기사와 그 댓글(경향신문, 2016)

내 기억상 그분은 차벽에서 약 20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다. 그럴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루머는 계속 생산되고, 전파된다. 기록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기록을 통해 말하고 싶었다.

이러한 아쉬움은 박근혜가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한 노동조합 활동가가 박근혜 퇴진 집회 당시 집회에서 발언을 하며 사회 개혁을 위해 차기 정부에게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글을 업로드했다. 거기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이명박근혜 때는 가만히 있다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문재인이 만만하냐”

“촛불혁명은 순수한 시민의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너희같은 전문 시위꾼의 것이 아니다”

어이가 없었다. 집회라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전문 시위꾼’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 집회 신고도, 집회를 위한 무대 설치도, 가수 섭외도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원 통제, 안전관리, 뒷정리도 경찰과 미화원의 일만이다. 오히려 그들보다는 집회 주최와 연결된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이에 임한다. 이러한 노동을 나는 많이 보아왔기에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설득시킬 증거, 즉 ‘기록이 없었다’.

기록이 없으니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다. 시민단체에서 집회 현장을 아카이빙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더구나 이제 와서 하려고 해도, 집회라는 것이 당시 현장에서의 사건과 결합된 정동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에서 형성된 정동과 맥락은 이미 휘발되었을 것이다. 잘 찾아보면야 집회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기사나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라오겠지만, 대부분 생산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찾아도 거기 대해 기억하고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절대적인 양도 적다. 더구나 나도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도 사진을 찍었지만 당시에는 기록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지 없이 촬영하고 싶은 것을 촬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효과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 아카이브로서 서비스하는 것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애초에 내가 논문 주제로 기록관리 교육을 생각한 것도, 시민단체 활동가가 그런 기록을 스스로 잘 남기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우리는 한결같이 투쟁해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말을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나에게 있어, 이번 윤석열 탄핵 집회 아카이빙은 최고의 기회였다.

이번 아카이빙 작업에 참여한 워킹그룹 동료들도 각자의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나의 경우 그것이 이전 집회 참여, 특히나 박근혜 퇴진 집회와 관련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기록으로 말하여 가져

뉴스를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이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론장까지 들릴 수 있게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컸다. 그렇기에 이번 아카이빙 작업을 계기로 그들 손으로 직접 집회 현장을 아카이빙하게 돕지는 못하더라도, 집회 현장의 면면을 남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내 이런 이력을 당시 우리 워킹그룹의 동료들은 몰랐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왜 나에게 많은 컬렉션 중 집회 및 시민기록을 수집해줬으면 한다고 제안이 온 것인지는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다. 처음 제안 전화를 받았을 때는, ‘혹시 내가 집회 경력직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와 같은 생각도 잠깐 들 정도였다. 그래도, 막연히 생각만 해오던 일을 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집회현장 가운데에서 셔터를 누르다>

개문발차(開門發車). 원래는 문을 연 채로 차를 출발시킨다는 뜻이지만, 이에서 착안해 시간이 촉박하여 자세한 사항을 따지지 않고 일을 진행시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체계를 잡아두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 우선은 윤석열 퇴진,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록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자. 그 두 가지 목표로 시작된 이 아카이브 워킹그룹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인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역시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2월 3일 밤처럼, ‘큰일날 뻔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안을 동료들과 함께 ‘블랙 유머’로 풀었다. 어떤 때는 분노와 답답함, 어떤 때는 희망과 유대감, 동지애를 나누며 작업은 조금씩 진행됐다. 수집정책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우리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녹음하는 게 곧 기록이 될 것이다.

집회의 모양새는 대충 알기 때문에 찍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찍었다. 지금 고민한다고 뭔가 유의미한 윤곽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았다. 피켓이 보이면 찰칵. 깃발이 있으면 찰칵. 높은 곳에서 군중들을 담은 한 장 찰칵.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건 거의 다 찍었다. 이처럼 즉각적인 촬영과 선택이 곧 기록 생산의 과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집정책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효율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록을 선별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비슷한 구도의 사진은 다시 찍지 않는다. 또, 등록할 때는 이미 생산 단계에서 한 차례 필요한 것만 찍었다고 판단하여 휴대폰 갤러리 기능에서 중복된 사진이라고 알려줄 정도의 유사도가 아닌 이상 최대한 모두 올렸다. 2025년 하반기 현재까지 수집된 기록은 본디 지털(born digital) 전자기록이 1,608건, 비전자기록 237건으로 총 1,845건 가량 된다.



[그림 3-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상정원에서 촬영한 사진
(2024년 12월 21일 촬영)

이렇게 모인 기록들은 이색 시위도구, 그 외 집회 용품, 시설, 시민, 경찰 기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색 시위도구로는 깃발과 응원봉을 들 수 있는데, 이 기록들은 특히나 맥락 파악에 신경 썼다. 수집한 사진기록에 대한 기술이 가능할 정도로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깃발의 경우 그 안에 적힌 문구를

검색하면 어떤 단체의 깃발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 속 글자를 알아보는 것은 영상으로도 어려워 기술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다. 누가 만든 깃발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일단 출처 미상으로 등록해 둔다. 응원봉의 경우 촬영 전 직접 응원봉을 든 시민에게 다가가 누구의 응원봉인지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다. 미처 묻지 못한 경우, ‘아이돌 응원봉 모음’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그 결과를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가며 찾았다.

그 외 집회 용품으로는 피켓, 포스터와 현수막, 전단지, 코스튬 용구와 그걸 입은 사람들 정도를 분류할 수 있다. 피켓은 실물, 즉 비전자 형태로도 함께 수집하고, 포스터와 현수막은 직접 들고 올 수 없으니 사진으로 수집한다. 이 외에도 이동기지국, 푸드트럭과 같은 지원 시설이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하고 행진하는 모습,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모습이나 그들의 노동의 흔적이 드러나는 모습, 또 광화문광장 중간지대와 같이 시위현장에 있는 경찰의 모습도 촬영하였다.

기록을 기증받기도 했다. 외부에서 기증받은 것은 거의 없고, 이 컬렉션을 위해 수집된 기록이 내가 직접 촬영한 것 반, 지인이나 다른 팀원들에게 기증받은 것이 반 정도 된다. 시민에게 직접 전해받은 기록은 2024년 12월 22일 남태령 집회 현장에서의 기록, 나는 미처 촬영하지 못한 최종 파면일 시민들이 환호하는 기록 등이다.

내가 수집한 기록 중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꼽자면 페미니즘 단체 현수막,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집회 현장의 안내방송,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국회에서 환호하는 모습 등이다. 이 의미는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도 간단히 말해보자면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록물들이다.

또 다른 의미로 의미가 있는 기록물도 소개하고 싶다. 2025년 2월 초에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탄핵 집회 현장을 기록한 적이 있다. 그들에게 ‘빨갱이’는 이제 고전 레퍼토리가 되었고, 요즘은 ‘텐안면’⁶⁾을 외치며 시위 현장에 나선다. 2월 말 우리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대한 탄핵 찬성 세력의 ‘맞불 집회’가 있었다. 탄핵 찬성 세력이 “윤석열을 처단하라”와 같은

6) 천안문의 중국어 발음

구호를 외치면, 탄핵 반대 세력이 ‘처단하라’ 부분에서 “석방하라”를 크게 외쳐 “윤석열을 석방하라”으로 들리도록 휘방을 놓았다. 탄핵 반대 세력은 “텐안먼” 외에도 “Chinese go home, go back (to) your country”, “CCP⁷⁾ out”라는 구호를 계속 외쳤다. 윤석열 탄핵 찬성 세력이 중국인일 것이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일종의 윤석열 수호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 외에도 극우 유튜버가 캠퍼스 내로 들어오는 장면을 모두 영상으로 남겼다. 이런 만행을 기록으로 남긴 것 자체가, 이후 사회적 논의와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의 ‘기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을 한지라, 돌이켜보면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것에 집중했던 것 같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집회 현장에서의 자원봉사자의 노동과, 윤석열 퇴진 이후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해 말하는 다양한 집회 주체들의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여성의당, 여성인권단체나 소수인권단체의 깃발들, 집회 무대, 집회 전후의 세팅하는 모습들, 부스, 노점, 깃발과 응원봉, 경찰의 모습……. 찍을 당시에는 ‘이건 찍어야 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방점을 찍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림 3-4] 조명을 점검하는 집회 운영진(2024년 12월 21일 촬영)

7) 중국 공산당



〈그림 3-5〉 페미니즘 단체들의 깃발(2024년 12월 21일 촬영)

〈기록을 하며 안과 밖을 바라보다〉

나는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형성된 생각들을, ‘기록’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에 기록하지 못했기에 생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기록 작업이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록을 통해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기보다는, 기록학을 배우고 기록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해졌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사실 내 내면보다는 바깥세상이 더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가장 먼저 애기하고 싶은 것은, 직접 아카이빙에 뛰어드는 시민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운동 당시에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출판과 전시를 진행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아카이빙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이번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는 시민이 기록의 기획자이자 생산자, 수집자가 되는 사례가 다수 등장했다.

그리고 집회가 소위 ‘MZ’스러워졌다는 점도 말하고 싶다. 박근혜 탄핵 집회는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번 집회는 달랐다. 많은 젊은 세

대들이 응원봉을 흔들고, 구호를 외쳤다. 세대 간 통합을 위해 최신가요와 더불어 50대가 알 법한 대중가요와 민중가요가 함께 나오기도 했다. 재미있는 깃발이나 코스튬도 많았다. ‘스타워즈’, ‘토끼를 좋아하는 전국 당근연합’, ‘전국 뒤로 미루기 협회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다’ 등 이색 깃발도 다양했다. 배트맨 등 유명 캐릭터 코스프레는 물론, 윤석열 코스프레를 하고 온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기사로 주목받기도 한 ‘응원봉 부대’도 있다. 겨울에 집회가 열린지라, ‘윤석열 퇴진 크리스마스 트리’도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변화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이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보다 더 예민해졌다는 것이다. 광화문 광장을 걷고 있을 때였다. “타인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하지 마십시오”와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붙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 내가 찾는 의미가 있었다. 바로 현수막을 촬영했다. 여전히 이전과 같은 경향이 남아있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이 변화가 가장 체감되는 것은, 집회 시작 전 사회자의 안내 멘트이다.

“여성,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맙시다.”



[그림 3-6] 전국여성연대가 건 집회평등수칙 현수막(촬영일 미상)

이런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페미니즘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싶다. 그 전부터 활동한 사람도 많았겠지만, 규모 자체가 커진 것은 2015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⁸⁾당시에도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며 시민들이 투쟁과 데모에 익숙해진 게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트위터(구 '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의 영향도 큰 것 같다. 결집할 플랫폼이 있다는 것은 주요 언론이나 거대 플랫폼에 진입하기 어려운 소수자들에게 있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는 남태령 시위에서처럼 경찰의 폭력 진압과 같은 부정적인 행적을 폭로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기도 했다. 이 현상에 놀라 남태령 시위와 시간적으로 가까운 소셜 미디어 상의 개인 기록들을 자원자에게 직접 전달받아 아카이빙한 연구자도 있을 정도다. 이렇게 플랫폼을 바탕으로 광장에서조차 소외될 뻔한 사람들이 결집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양으로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변화도 있다.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에 비해 이번 윤석열 탄핵 집회에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아졌다. 이것이 소셜 미디어와 같은 뉴미디어 기술의 명암이 아닐까. 극우 유튜버가 소셜 미디어의 확산성을 이용해 많은 사람에게 가짜 뉴스를 전파했고, 그 과정에서 유튜브 수익을 내는 것까지 목격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맥락을 갖춘 기록을 모으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에도 여전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윤석열 탄핵 집회의 큰 축 중 하나이던 비상행동의 활동은 지난 6월 종료되었지만, 10월 현재는 '기록기념위원회'를 출범하여 기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관계없이, 비상행동을 이룬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의 단체들은 대통령의 자리에 누가 있든, 늘 그래왔듯이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비상행동 외에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쟁하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뀐 지금도, 그 후로도 계속 존재했고, 존재할 것이고, 나는 그들

8) 2016년 발생하였으며, 여성이 상가 화장실에 침입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페미니즘 리부트와 맞물려 거대한 추모의 물결과 함께 많은 이들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을 기록하고 싶다.

〈기억하고, 길을 밝히고, 연대하다〉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에도 민간기록은 오랫동안 기록관리 분야에서 경시되어 왔다. 201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확산된 민간기록물 수집 사업도 단지 공공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하는 정도였다. 정치 현안에 직접 관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일에는 더 무관심했다. 그렇기에 나는 〈12.03 아카이브〉 작업을 하며 시민들의 집회 문화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사진·영상·구술기록의 형태로 집회 현장의 분위기와 에너지,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관계와 정동을 함께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기에 이 작업이 기록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증거로서도 기록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 개입설과 같은 음모론이 반복되고 있다. 어쩌면 나중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 역시 시간이 흐른 뒤 왜곡된 방식으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반박의 근거로서, 당시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한 아카이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식의 차이와 갈등의 흔적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즘, 장애인 인권, 퀴어 등 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 이상의, “여기에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며 존재했다”는 메시지가 체계보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당시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용도로, 또 이를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는 발판으로 아카이브가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면면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언론 보도가 아닌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누군가는 현장을 촬영했을지라도, 그 기록이 장기적으로 검색 가능하고 맥락 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지금이지만,

실제로 이를 필요할 때 적절히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극우 유투버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료를 삭제하고 잠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그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증거로 삼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을 담은 사진, 특정 시점을 포착한 웹 스냅샷 등을 수집·정리·기술하여 아카이브로 등록하는 과정은, 흩어진 정보를 구조화하고 보존하는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기록을 둘러싼 환경과 주체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록이 우연이나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할 경우 어떤 기록은 남고 어떤 기록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록 주체로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맥락화, 보존, 공유에 대한 기준과 역량은 개인의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관리 교육이 시민 기록 실천을 뒷받침해, 그들의 기록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기에 이 아카이브가 다른 시민 기록 활동가들에게 하나의 참고 사례, 즉 실천 가능한 교본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 기록을 생산하고 싶어도 전문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아카이브화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만나,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독립적인 아카이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시민 기록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이상의 역할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먼 훗날에는 역사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도 있고. 나는, 또 우리는 단지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남긴 의도를 얘기할 뿐이다. 그 의도를 이용자들이 이해하기를 강요할 마음은 없다. 다만 이 의도가 전달돼서 기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선택지가 다양해지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다.

내가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다양한 말풍선이다. 비상행동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발언을 했다. 그 시민들이 가진 정체성은 다양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모였지만 각자 꿈꾸는 세상은 다른 것이다. 그런 목소리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아카이브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집회를 위해 힘쓴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이제는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 마이크를 건네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더 알리고 싶었다. 그것을 조금이

나마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한 기분을 느낀다.

나는 사명감이나 이타심과 같은 거창한 명분만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집회에 참여해 온 기록전문가로서, 광장에 선 나와 동지들의 경험을 기록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카이브에 담긴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나의 역사’이다. 그리고 기록은 함께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이정표가 된다. 기록 안에 남은 타인의 발자취를 기록을 통해 마주하며 공감하고 배우며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억은 사회적으로 확장된다.

사실 나의 정체성은 그동안 내가 접하고 만나왔던 기록인, 아키비스트보다도 활동가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전에도 학생운동을 하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록학을 공부한 나는 ‘남기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서는 기록이라는 도구가 생겼고, 나의 말만이 아니라 타인의 말까지 남기며, 기록을 칼이자 방패로 쓸 수 있게 된 것 같다. 내가 이 아카이빙 작업에 기꺼이 뛰어든 이유는, ‘우리의’ 역사를 남기고 싶어서였다. 이번 비상계엄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계기로 내가 기록학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는 자원봉사만이 아니라 임금 노동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는 생각하지만.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서포터가 되고 싶다. 게임 속 탱커처럼 기록을 통해 길을 터주고, 힐러처럼 타인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기록을 보고 누군가는 옛날 데모를 위해 나갔을 때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고, 어떤 활동가는 우리가 이곳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소셜 미디어에서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여성단체가 뭘 했는데!”라며 공격받을 때 우리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며 자신을 방어하고, 또 치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아카이브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아카이브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처

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 아카이브는 권력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기간이 길었고,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남기기 위해 아카이브를 활용한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아카이브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을 공고히 해 온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이 질문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오늘날 <12.03 아카이브>와 같은 시도가 가능해진 것 역시 개인이 기록 장비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적·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시민 주도의 아카이브는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논의를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만든 아카이브로 한정한다면,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시민단체와 사회운동 조직은 각자의 활동과 경험을 축적해 온 그들만의 역사, ‘자생적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억이 기록의 형태로 정리되고 공유될 때 구성원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부심과 연대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시민 아카이브는 단체의 활동 내용과 의사결정, 재정 운용 등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외부 시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그 다양성과 병렬성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워킹그룹만이 아닌 깃발을 모으는 아카이브 등 다른 아카이브를 보며 다시금 용기를 얻었으니까.

시민 기록의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은 권력이나 언론에 의해 선별되지 못한 기억을 전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 ‘공식’으로 인정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아카이브는 민주주의와 대립할 수도, 이를 지지할 수도 있다. 내 논문에는 “객관성을 지향하는 상호주관성의 공론장 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식만 존재해서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각자의 사적인 기억, 주관적인 기억들이 병렬적으로 공존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닐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하다. 아카이브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어떤 원칙과 윤리를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날 혐오와 배제를 앞세운 정치 담론이 확산되며,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래 세대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03 아카이브>와 같은 시민 아카이브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를 전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내가 혼자 나선다고 무엇이 달라질까’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모여 거대한 집회를 만들고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용기와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다. 더불어 알고리즘과 자본, 조직된 여론 조작이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 아카이브는 잘못된 정보를 증거로 정정하고 사라질 수 있는 기억을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시민기록의 특징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카이브를 구축하며 촬영한 대부분의 사진에는 수많은 군중 그 자체가 담겨있을 뿐, 특정한 주인공이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두가 주인공이다’, 정확히는 ‘내가 정한 주인공으로 나만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기록에, 또 아카이브에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제 2 절 판도라의 상자 아래에는 결국 희망이 남아 있다

그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정아는 회상했다.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다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절대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대통령이 열어버렸다.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룻밤 사이 대한민국에 혼란과 공포가 퍼져나갔다. 정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토요일마다 큰 집회가 열린다고 했다. 그렇게 정아는 대전에서 서울로 향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하며 집회 현장에 모였다.

“투표 해, 빨리 해!”

마이크를 든 집회 사회자가 구호를 선창하면, 시민들이 그걸 따라 외쳤다. 정아는 추위에 떨며, 오후 다섯 시가 넘도록 결과를 기다렸다. 정아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세대였다. 이런 거대한 여론이라면 여당도 여론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가결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렇게 생각하며 애타게 기다렸건만, 정족수 미달이라니.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다. 정아도 그중 한 명이였다.

정아는 우연히 정아가 돌아간 직후, 국회의 모습을 담은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았다. 다들 실망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응원봉을 든 2030 젊은 세대들은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구호를 따라 외치며 열심히 응원봉을 흔들었다. 그 추위 속에서, 그리고 그 절망감 속에서도.

“여기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지금까지는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래, 나도 다시 한 번 광장에 나와 보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극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어야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탄핵된다. 그렇기에 탄핵이 인용되는 그 날까지 수많은 시민운동단체와 시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광장에 나섰다.

사실 정아는 열리는 집회라면 다 참석하고 싶었다. 하지만 주말에 대전에서 서울을 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금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쌓여갔다. 아쉬웠고, 답답했다. 집회에서 나누는 그 감정을 정아도 온전히 느끼고, 공유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곳, 대전의 집회를 가자.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로컬 집회가 열리지 않던가. 그렇게 정아는 대전의 집회 장소인 ‘은하수네거리’로 향했다.

처음 대전에 간 날은 생각한 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 대전은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모이나? 다음 집회에는 다시 서울에 가야 할까? 하지만 정아는 지역에 발을 디디고 싶었다. 분통터지는 뉴스를 보다가도, 집회에 나가 다같이 노래를 부르면 숨통이 트였다. 그 느낌이 자꾸 가슴에 어른거렸다. 정아는 계속해서 은하수네거리로 발걸음했다.

대전 집회의 규모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서울 집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대전 집회만의 장점도 조금씩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꾸준히 대전 집회에 나오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며 그들에 대한 ‘내적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응원봉을 든 사람들, 깃발을 든 기수, 시민발언을 하는 사람들...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이들이지만, 광장에서 자주 마주치니 괜히 반가웠다.

정아는 운동권이었고, 젊은 시절부터 크고 작은 집회에 참석해 왔다. 다양한 집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집회는 많은 게 달랐다. 웬지 늘어난 휠체어를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들, 이태원 참사가 생각나서일까, 작고 어린 아이들을 보고 염려하는 마음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집회 참가자를 보았을 때 전보다 2030, 특히나 2030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 체감되었다는 점이다. 보통 집회라고 하면 엄숙하고 비장한 분위기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당장 이전

의 가장 큰 집회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탄핵 집회도,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으니까. 하지만 이번 집회는 굉장히 명랑하고 신나는 집회였다. 그걸 체감하게 된 것은, ‘뒷풀이’였다.

보통 행진 중간에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있어 볼까, 하는 생각에 꽤 긴 시간 대전 집회 장소에 머물러있던 날, 정아는 뒷풀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주최 측이 음악을 세 곡 틀어주면, 거기 맞춰 응원봉을 흔드는 식이다. 젊은 친구들 몇이 나와 뒷풀이 자리에 서서 응원봉을 흔들었다. 그리고 50대 정도일까,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아는 매번 침을 똑똑 흘린 채 지켜봤다. 그 뒤로 정아는 항상 끝까지 남아 뒷풀이를 즐기고 돌아갔다. 자기 전에도 괜히 그 모습이 생각났다. 추운 겨울밤 바람을 가르며 빠르고 신나는 집회 ‘플레이리스트’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응원봉과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서울에서도 감동적인 장면은 이어졌다. 12월 21일,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날이었다.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농민 단체가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아 서울로 향했다.

“트랙터가 남태령에서 밭목이 묶였어요. 서울 경찰이 막았대요. 폭력 진압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들 도와주세요.”

그때,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달려왔다. 트위터에서 덕질 이야기를 하는 덕후들이, 어느 순간 덕후 정체성이 아닌 시민 정체성을 몸에 두른 ‘시민’이 되어 남태령으로 달려갔다. 차가운 남태령에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와 연대의 온기가 짙어졌다. 그들은 농민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모두가 귀 기울였다. 대의 중심에서,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존중으로, 다양성으로 흐르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가 주체로 자각되는 순간이었다. 꼭 자신이 속한 집단이 주체가 아니더라도 연대가 필요한 집회에 거리낌없이 달려가는 ‘말벌 동지’⁹⁾가 남

9)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한 자연인 히명구 씨가, 말벌이 꿀벌집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리나케 달려갔는데, 여기서 생긴 ‘말벌 아저씨’ 밈의 파생이다.

태령에서 탄생했다. 정아 또한 지금이라도 남태령에 가야 할까 망설이며 생중계로 현장을 지켜보았다. 정아는 어느 순간 중얼거렸다.

“혁명이다.”

농민 집회니 당연히 농민이 주가 되어 이야기가 진행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정아는 그 추운 동짓날 새벽 내내 이어진 수많은 이들의 시민 발언을 유튜브 라이브로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저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농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이었다. 참가자라는 정체성은 이미 넘어섰다. 모두가 시민으로서 주체화되어 있었다. 돌봄과 연대가 시민의식으로 번져나가는 이것을 어찌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런데 남태령을 주목한다는 사람들도, 이 주체로서의 시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아는 바로 그것이 알고 싶었다.

남겨야만 해.

무엇을? 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남겨서 뭘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아에게는 남겨야만 한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다. 남겨야만 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어제를, 오늘을, 내일을 남겨야만 해. 힘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곁의 평범한 사람들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무릅쓰고 나온 사람들이 하려는 말이 무언지, 들어야만 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알아야만 해.

그렇게 생각하며 정아는 다시금 집회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흘린 듯 바라볼 뿐이었다.

* * *

해가 바뀌어 2월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아카이브를 만들어 이 내란 사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무언가 남겨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전히 뭔가 아쉬웠다.

“시민발언을 한 사람 말고도, 집회 현장에서 깃발이나 응원봉을 흔든 사람, 그냥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사라진다면 아쉬울 것 같은데.”

그것을 정아는 그대로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정아의 남편은 눈을 한 번 꿈뻑이고는, 한 마디를 툭 던졌다.

“당신이 써 봐.”

뭘 어떻게 쓰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인터뷰를 해야 하나? 하지만 정아는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인터뷰를 한 후에 결과물을 보여줄 만한 플랫폼이……마땅히 있는 것도 아닌데. 정아는 초조한 얼굴로 무릎을 툭툭 두드렸다. “나도 마음이야 있지만, 어떡하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다, 한 마디를 더 툭 던졌다.

“당신은 덕후니까, 덕후들을 인터뷰 해.”

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아의 머릿속이 환해졌다. 그래, 덕후. 그리고 광장.

‘광장과 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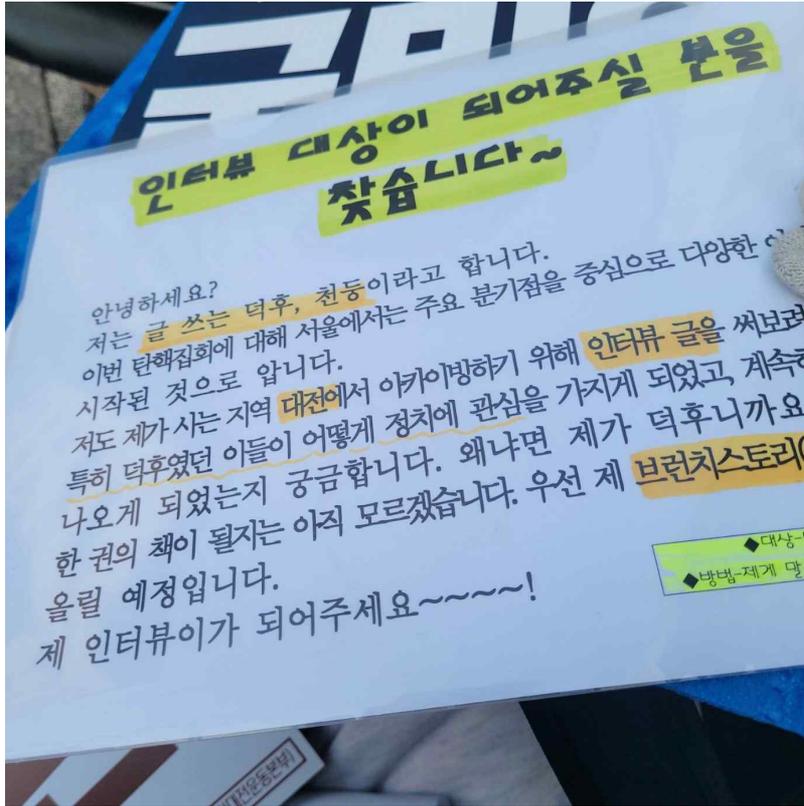
키워드가 정해지자 많은 것이 명확해졌다. 어찌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렇다, 정아 역시 ‘덕후’였다. 마을 운동, 학부모 운동을 하고, 글을 쓰다

건강상의 문제로 많은 것을 내려놓았던 그 무렵. 락밴드 ‘국카스텐’을 좋아하며 정아의 인생은 새로운 챕터로 들어섰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던 정아가 락밴드를 좋아하게 되어서만은 아니었다. 운동에 열성적으로 매진하다 보니 취미생활에 관심을 가질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국카스텐이 삶의 즐거움을 알려주었다. 신곡을 들으며 가슴 벅차기도 하고, 우쿨렐레도 배워 보고, ‘내가 이런 곳에 갈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콘서트에 가보기도 하고, 10대부터 70대까지, 그저 같은 밴드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만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의 신념에 매진하는 것만이 의미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국카스텐 ‘^원터덕’은 정아에게는 스스로를 설득해야 할 만큼, 그리고 새로운 책을 내게 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

그렇기에 같은 덕후로서 궁금했다. 어떤 이유로, 무엇이 덕질을 할 시간에 ‘덕후’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나아가 덕질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싶었다. 아낌없이 사랑을 내어주고, 그 애정을 바탕으로 ‘2차 창작’¹⁰⁾도 하고, 우정을 쌓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부조리에 항의할 줄 아는 덕후들을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별나다, 이상하다, 이런 수식어로만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내가 글로 잘 녹여낸다면, 사람들이 덕후의 다른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웬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10) 덕질 대상을 소재로 한 창작물. 보통 팬아트, 팬픽(션), 팬메이드 영상, 팬메이드 음악, 팬메이드 수공예품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나 상업적 서비스 중인 창작물이 그 대상인 경우가 많아, 덕질 대상이 되는 창작물은 1차 창작, 이를 바탕으로 팬이 만든 창작물은 2차 창작이라고 부른다.



[그림 3-7] 정아가 인터뷰이를 모집할 때 사용한 피켓

“광장과 덕후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광장에서 자주 보이는 사람, 들고 있는 깃발이나 응원봉이 본인의 것이 맞는 사람. 그것이 확인되면 정아는 질문과 함께 피켓을 내밀었다. 항상 성공은 아니었다.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손사래치는 이들도 많았다. 광장에서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조직력이 뛰어난 한 팬덤이 인상적이라 트위터로 핵심인 물을 한 명 섭외하고 싶었지만 묵묵부답이라 실망한 적도 있었다. 인터뷰이의 연령대도 다양하게 하고 싶었지만, 40대가 한 명, 그리고 대부분이 2030 세대가 되었다.

왜 광장에 덕후가 많이 뛰어나왔을까요? 왜 덕후들은 정치 문제에 민감할까요? 덕후들이 만들어갈 광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질문을 품고 정아는 스물다섯 명 남짓한 사람들을 만났다. ‘덕후’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뷰이지만,

그들도 결국 덕후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이다. 다양한 모습의 나이트가 그들 안에 들어 있었다. “죽고 싶지 않아서 나왔어요”, “나로 살아가고 싶어요”. 우울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가는 사람들. 평범하지만 특별한, 오늘이 힘겨워도 내일을 조금은 그려보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광장에 나왔다. 정아는 인터뷰를 이어가다 깨달았다.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완성되겠구나.’

정아에게 있어 이번 광장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쉽게 일반화할 수야 없겠지만, 더 처절하고 더 치열한 삶의 형태가 많은 지역의 목소리가 많이 아카이빙되고, 더 알려져서 서울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주류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정아는 생각했다.

그들의 매력과 개성을 살리며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인터뷰이가 궁금해지는 글을 쓰자. 치열하게 고민하며 작업하는 와중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겨 파라핀 치료기로 치료해가며 자판을 두들기기도 하고, 체력의 한계에 부딪쳐 한 주간 가만히 신 적도 있었다. 서울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시끄러운 카페에서 버티듯 인터뷰를 진행해야하기도 했다. 하지만 몸이 고단할지언정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여보, 오늘은 무슨 덕후야?”

정아가 인터뷰에서 돌아오면, 정아의 남편이 묻는다. 그러면 정아는 거기에 기꺼이 답한다. 단순한 대화가 아닌 정아만의 중요한 인터뷰 정리 시간이다. 하루 정도 여유를 가진 뒤 본작업을 시작한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메모장을 들여다보다, ‘핵심이다’ 싶은 내용에 동그라미를 친다.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 게 아니라 타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제외한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질문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아는

인터뷰이가 직접 내는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 후 인터뷰이가 주는 인상도 함께 정리한다. 굵은 줄기같은 인상 한 가닥을 중심으로, 생각의 가지가 뻗어나간다.

‘인터뷰를 한 사람이 글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중요하지 않다. 글을 읽은 사람이 이 사람을 궁금하게 해야 한다.’

인터뷰이를 만족시키거나 인터뷰어가 만족스런 글이 아닌,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 글을 쓰자.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며 정아는 자판을 두드렸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수정해 주세요. 확인이 완료되면 인터뷰이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투고한다. 인터뷰에 기꺼이 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희망,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느끼는 개성과 온도를 떠올리며 정아는 작업을 이어갔다.

* * *

지금까지 정아는 대전 속 이방인으로서의 익명성을 즐겼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도, 그 익명성이 안락해서 굳이 애써가며 벗어나고 싶지 않았고, 그것을 깨부술 마땅한 계기도 없었다. 그런데 덕후들의 경험을 인터뷰하고 글로 기록하자, 대전이 정아에게로 다가왔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정아를 대전으로 끌어들이고, 대전을 돌아보게 했다. 대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전 집회에 대한 애정은 생각보다도 더 컸다. 집회 규모가 작다고 생각한 것이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였다. 대전을 알며, 정아는 대전에 자리잡았다.

은하수네거리라는 정겨운 이름을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내지 않았을까. 은하수네거리만이 아니다. 모르고 지냈을 사람들을 집회 현장에서 만나고, 인터뷰이로 만났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렇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던 정도였던 정아는 그들을 직접 만나며, 그들 각각의 다름, 그 ‘다름’이 그들 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알며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하면 안 그러고 싶어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사는 곳도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인터뷰이들과 만났기에, 정아는 달라지게 되었다. 사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은둔형’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광장에 나와 인터뷰이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계를 맺게 되면서 정아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다양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타인에 대한 존중이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들에 대한 애정도 생겼다. 그리고 그 애정은 그대로 대전으로 향했다. 안락한 익명성의 알껍데기에 금이 갔다. 웬지, 대전에 온 지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대전 시민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자신감도 붙었다. 나를 중심으로 한 글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난 못 해, 나 내성적인 사람인데, 하고 손사래를 치던 정아는 저 멀리 사라져 아득하게 느껴졌다.

정아는 다시금 자신을 이곳까지 이끈 충동을 다시 바라본다.

남겨야만 해.

무엇을? 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남겨서 뭘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향한 이 질문에 정아는 답할 수 있었다.

무엇을? 집회에 나온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남겨야 해. 나는 덕후여서, 왜 덕후들이 광장에 나왔을지가 궁금했어. 그래서 그것을 남기려고 했던 거야.

왜? 이 목소리들은 이 시대의 메시지잖아. 오늘이 마음이 잊히면 안 되는 거잖아. 죽고 싶지 않아 나온 사람들의 목소리에 지금껏 누가 주목했지? 나라도, 다른 누군가라도 그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야. 5년, 10년이 지나도 이 목소리들이 남아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나는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 그리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어. 할 수만 있다면 이걸 모아 책도 낼 거야.

이렇게 남겨서 뭘 할 수 있냐고? 덕후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시민이고, 광장의 영웅이라는 걸 보여줄 거야. 연약한 개인도 뭉치면 강하다는 것을, 그 돌봄과 연대의 힘을, 덕후들은 알고 있었어. 그 경험이 정계가 엷나가고 국가폭력이 사회를 뒤덮으려는 순간, 힘을 발휘한 거야. 그렇게 광장이 달라지고, 시민이 달라졌잖아.

민주주의의 시작은 ‘주권’이야.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자신을 시민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했어.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 그 주권을 외치기 위해 기꺼이 광장에 나왔어. 그것만이 아니야. 스스로가 광장의 주인이 되어, 돌봄과 연대를 실천하고 진짜 정치를 하는 시민이 탄생했어. 이것이 일상으로 퍼져 분명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와는 또 다른 의미가 탄생할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남겨야만 해. 이 ‘덕후들’의 목소리를.

* * *

몇 달 후, 드디어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 엮은 책이 출판됐다. <팬덤에서 자유로(모두의책협동조합)>. 광장에 선 덕후들을 간결하게 드러내기 좋은 말이다 싶어 제목으로 삼았다. “천둥처럼 하늘을 울리지 못하면 어쩌리, 한껏 소리쳐 보는 거지. 당신에게도 번쩍, 하고 가닿기를”이라는 마음을 담아 원래 사용하던 ‘천둥’이라는 필명을 그대로 썼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 스물다섯 명에, 두 명이 늘었다. 특히 마지막 인터뷰이와의 만남은 인상적이었다. 인터뷰를 마무리한 시점이었는데, 역사박물관에 간 어느 날 같이 간 친구가 대뜸 “저 분을 인터뷰해”라며 계속 부추겼다. 얼렁뚱땅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덕질을 하시나요?”

지금까지의 인터뷰가 그러했듯, 정아는 이 질문으로 인터뷰를 연다. 그러자 인터뷰이는 한숨을 푹 내쉬기 시작했다.

“제가 덕질을 못해가지고.”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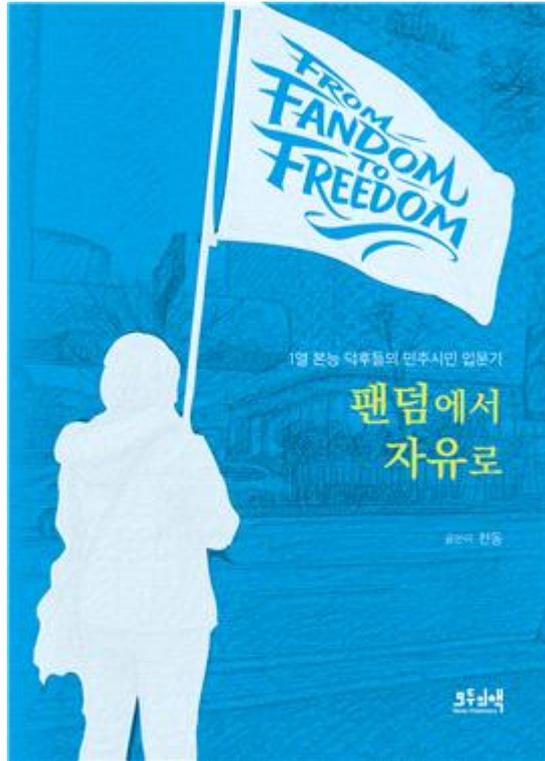
“제가 해야 할 덕질을 못해가지고, 미치겠어요 진짜로.”

알고 보니, 이 인터뷰이는 아주 열성적인 ‘연뮤덕’¹¹⁾이었다. 그를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게 됐다.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아는 그에게서 아주 많은, 또 귀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참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다. 각자의 덕질 분야도, 관심사도, 삶의 궤적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광장에 발걸음한 이유도, 거기서 느낀 감정도, 투쟁의 모습도, 바라는 세상의 모습도 가지각색이니까. 하지만 덕후들은 서로 닮은 점이 있다.

덕질은 덕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시야를 넓혀주기도 하며, 말 그대로 살아갈 이유와 삶의 의미를 주기도 한다. 많은 작품들이 다루는 ‘고난 속에서도 소중한 것을 위해 싸우는 마음’, ‘선과 악,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에 덕후들은 자극받았다. 거기서 비롯된 덕후들의 광장에 설 용기, 연대와 사랑,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책에 듬뿍 담고 싶었다. 그들이 밝힌 대전과 서울의 빛, 스물일곱가지의 색을 담고 싶었다.

11) 연극, 뮤지컬을 좋아하는 덕후.



[그림 3-8] <팬덤에서 자유로(모두의책협동조합)>의 표지

대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책을 출판하려고 했을 때, “잘 끝났는데, 굳이 아카이빙까지 해?”, “인터뷰만 담아서 그게 어떻게 책이 돼?”, 그런 말들을 들었다. 동의할 수 없었다. 내란에 맞서 싸운 이들은 의병과 같다. 정아는 장군이 아닌 의병까지도 기억하는 세상을 꿈꿨다. 그들의 이야기를 문히게 들 수는 없다. 그리고 파면과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끝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던 민주주의의 취약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보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오히려 이제 시작인 것이다. 나아가 세계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겪은 이 과정 자체는 중요한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아는 지금까지 작가로서 여러 책을 출간했지만, 쑥스러운 마음에 주변인들에게 그 사실을 잘 알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그들을

자랑하고 싶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했지 우리가 뭘 했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시민’이 정아의 인터뷰이들이다. 시민들이 이끌어낸 탄핵, 시민들이 이끌어낸 역사다. 다른 인터뷰집처럼 언론이 주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아는 기록한 것이었다. 다행이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놓치지 않고 직접 붙잡아서.

광장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정아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 단단해진 경험이 광장 안을 변화시키지 않았던가. 박근혜 탄핵 정국의 광장에서만 해도, 탄핵이 아닌 다른 이슈, 예를 들면 페미니즘에 대해 말하면 야유를 받거나 제지당했다. 반대로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은 제지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탄핵 정국은 달랐다. 자유발언에서 수많은 페미니스트들, 또한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더불어 가부장적이고, 소수자를 비하하는 거친 언사를 내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만큼은 그런 말을 꺼내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정아는 보았다. 그렇다면 극우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커질수록, 우리가 목소리를 낼수록 그들은 작아진다.

주변에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소위 말하는 ‘반대 진영’의 누군가가 있다면, 자신과의 관계 때문이라도 본인이 하려던 극우적 발언, 생각들이 주춤했으면 하는 마음을 정아는 가지고 있다. 정아가 경외심을 품고 있던 2030 ‘응원봉 부대’가 자신이 속한 4050 세대에 찬사를 표할 때, 자부심이 샘솟았다. 정아는 TK의 딸로서, 시대가 만들어낸 벽을 부수는 한 사람. 엄마는 넘지 못한 벽을 넘는 딸. 그리고 2030들의 물결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한 명의 시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정아가 희망을 되새길 때, 전화벨이 울린다. 남편이었다.

“여보, 언제쯤 도착할 것 같아?”

“어,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가? 빨리 갈게.”

그렇게 통화가 끝났다. 남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같이 출판사에 가, 책을 받을 예정이다. 책을 받아볼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 출판사, 기자들, 트위터 속 익명의 사람들, 친구들, 남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터뷰이들.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지지 속에 완성된 책이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글에 잘 담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정아는 기어이 해냈다. 정아는 스스로 눈치채지 못했던 내면의 열정을 마주할 수 있었다. 대전의 기록, 또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그리고 그걸 마주하며 정아가 느낀 경외감과 자부심을 담은 기록은, 책으로 탈바꿈해 세상으로 날아가게 되었다. 설렘. 인터뷰이들과 집담회 형식의 북토크를 하는 것을 상상해보기도 했다. 대전의 카페 겸 독립서점에서 열어 볼까. 거기서 인터뷰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책을 기다리는 동안, 봄부터 인터뷰를 나눈 학생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적극적으로 기록하는 일에 뛰어든 시민 중 한 명인 정아를 궁금해하며 대전까지 찾아온 학생이자, 한 명의 덕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그 학생에게 전한다. 학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다, 정아에게 질문했다.

“선생님께서서는, 시민 기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아는 시민 기록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정아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고, 이런 시국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인터뷰를 하고 책을 써서 그들의 목소리를 남기고 기억하는 일이라고 단순히 생각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아를 여기까지 이끈 걸 보면 시민 기록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정아는 답했다.

“모두가 내가 선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민주

주의를 지키고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역할을 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동적인 말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은 기록이 민주주의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시민들이 직접 모은 기록과 아카이브는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적인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평범한 것들이 다양해지면 더 좋겠죠. 공식이 가닿지 못한 곳의 이야기가 더 다양성을 가졌을 테니까요.”

학생은 그 말에 ‘생태계와 비슷한 것 같다’는 감상을 표했다.

“사회도 인간들이 모여 만드는 일종의 생태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상생해야지 공동선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요.”

생각해 보면 그랬다. 정아는 3월에 열린 ‘남태령 아카이브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정아처럼 인터뷰집을 내려는 사람, 사진을 찍어 웹페이지에 모으는 사람, 소셜 미디어 활동 기록을 남겨 그날의 남태령을, 광장을 기록하려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곳을 비추어 목소리를 모으다 보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민의 주권을 말하고 여론을 담은 시민 기록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이는 즉, 아카이브가 여론권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수단이자, 여론권력 그 자체임을 의미한다. 정아는 학생에게 말했다.

“우리가 한강의 소설을 보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그 문장 하나에 모두가 감동한 것처럼, 우리의 기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용기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모인 용기가 연대가 되고, 그 연대에서 자부심이 태어나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키워나간다면, 분명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아는 이번 광장을 보고, 겪고, 그 광장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요즘 세대에게는 시민으로서 가지는 주권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지지는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탄핵 정국 광장과 남태령에서 그들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광장에 응원봉을 들고 모인 2030의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느꼈다. 이 ‘덕후들’이 주권을 가지고 그려나갈 세상이 궁금해졌다.

“저는 사람들이 이 책을 부적처럼 간직하길 바라요. 그냥 책을 산다, 읽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요. ‘아, 우리를 지켜준 사람들’, 하고 갖고 있으면서 부적같이 지녀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저는 그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그들에 대한 그런 예찬을 이 책에 담았어요.”

한창 탄핵 집회가 이어질 때는 소위 말하는 ‘키세스 부대’와 같은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하고, 감사해하고, 눈물을 흘렸다. 성스러운 느낌마저 가졌다. 그들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이 흘러 그런 마음을 다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 그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 싸웠다 정도로 생각할 뿐. 하지만 ‘키세스 부대’와, 정아의 책 속 인터뷰이들은 다르지 않다. 정아는 말했다.

“우리가 느낀 성스러움을 잊지는 말자는 의미로라도 이 책을 좀 부적처럼 들고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간직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판도라의 상자 안에 든 온갖 재앙과 불행, 절망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지만, 그 밑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고 했던가. 비상계엄 사태는,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을 열어버린 것에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단단히 봉인된 채 안에서 썩다 못해 터진 항아리 안에는 그동안 드러나지 못했던,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어쩌면 누군가는 외면했던 끔찍한 진실들이 가득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국가폭력에 의해 죽을 수도 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응원봉이 광장에서 빛난다. 깃발들이 펄럭인다. 그들은 내란청산, 그 이상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 정아도, 다른 많은 이들도 광장에서 희망을 보았다. 우리의 이웃이, 평범한 사람들이 광장을 채웠다. 희망은 존재하고 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담은 기록이, 부적처럼 우리 곁에 남기를. 정아의 바람은, 그리고 광장에 선 평범한 ‘덕후’들의 목소리는, 날개를 펼친 채 정아의 숨결을 타고 지금, 세상으로 날아간다.

제 3 절 사람을 잇고 미래로 향하는 다리가 되어

-제1막-

무대 중앙, 발표용 단상 위에 낡은 노트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노트북 뒷면은 온갖 투쟁의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들로 빈틈없이 뒤덮여 있다. 스티커끼리 서로를 가리기도 한다. 조명이 켜지면, 짧은 머리칼에 캐주얼한 정장 차림을 한 민영주가 걸어 나온다. 걸음걸이에는 특별할 것이 없지만, 웬지 모를 당당함이 무대는 물론 객석까지 꽉 채운다. 조명이 민영주를 비춘다.

민영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허리를 굽혀 인사하다 객석을 바라본다)
저는 민영주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이유로 이곳에 서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잠시 정적이 흐른다.

민영주: (노트북 뒷면을 객석에 보여준다) 이 스티커들 보이시나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스티커,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 빨간 투쟁 머리띠를 두른 고양이 스티커, 그 외에도 다양한 스티커가 빈틈없이 붙어 있다) 정말 많죠. 이 스티커만큼은 아니어도 저는 정체성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농민, 활동가, 그리고 활자 노동자. 그리고 이번에는...또 시민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곳에서 발표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 경험도 많지만,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저는 오늘 12.3 내란 사태 이후 광장의 목소리들, 특히나 (또 박도박,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남태령 대첩이라고도 불리는 남태령 투쟁에서의 기록과 그것을 남기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민영주, 노트북을 조작한다. 이내 그의 뒤편에 있는 스크린에 탐스러운 잎사귀와 열매가 가득한 풍경을 찍은 사진이 떠오른다.

민영주: 저는 청년 농부입니다. 학생 시절 서울에서 철학 학사와 석사 과정 공부를 했다, 고향인 D시로 돌아와 농장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그걸로 상도 받을 만큼 토론을 좋아했고, 정치나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해서 가능하다면 계속 철학 분야에 몸담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상황으로 귀농을 하게 됐네요. 할아버지 때부터 한 곳인데요. 처음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다, 부모님께서서는 다른 데 가서 살고 계시고, 요즘에는 혼자, 또 가끔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잠시 정적) 사실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농사 자체도 어렵고요, 도시에서 살다 농촌에 오면 생활 환경도 달라지니 적응도 조금 어렵죠.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농업계가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거기서 생기는 청년으로서의 고충이죠. 여성인 경우 더 심하고. 젊은 게 뭘 알아, 여자가 뭘 알아,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그런 편견이나 성차별들. (답답해하는 표정) 그게 굉장히 거슬렸거든요. 저는 그나마 승계농이지만, 새로 시작하는 청년농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너무 힘들고, 차별도 많이 당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시다. 지자체나 정부 등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 커뮤니티가 생기면 고립감이 해소되니까. (손을 살짝 내밀며) 불만을 얘기하는 건 민원의 단계인 거고, 체계를 바꾸려면 정책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 지역을 개선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시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 모임을 할 때도 정책국장, 정책연구소장 등의 직을 맡았어요. (명료한 어조로) 청년농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을 정책화하려면 의견을 성토대회처럼 끝내는 게 아니라 법, 제도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농민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했지만, 농사만 짓는다고보다는 농사를 지으며 농업 현장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저 민영주였습니다. 지역에 기여하고 싶었고요. (밝은 목소리로) 바꾸는 게 좋아요. 좋게 만드는 걸 좋아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런 것들. 고칠 건 고치고, 할 말은 하고. 나아갈 건 나아가야죠.

민영주, 잠시 노트북 뒷면의 ‘밥상 물가 보장’ 스티커를 바라본다. 그의 시선에 따라 스티커가 뒤의 스크린에 떠오른다.

민영주: 농업을 하면서, 그게 제 생업이긴 하지만, 농업이 기반이 돼야 일반 국민들도 먹고 살겠구나. (웃음기 있는 목소리로) 쌀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업을 하며 아, 이게 진짜로 중요하구나, 하고 새삼 실감하게 됐어요. 저는 반은 도시민, 반은 농민으로 살았으니까. 도시민도 농업, 농촌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서로 관심을 주고 공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통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민영주, 다시 한 번 노트북을 조작한다. 이번에는 기사에 실린 2000년대 초반 학생운동 당시의 사진들이 스크린에 떠오른다.

민영주: 아까 제 정체성 중에 활동가도 있다고 말했죠. 사실 학생 운동도 했어요. 학부생 때는 총학생회를 했었고, 그때도 정책국장이었어요. 등록금 투쟁도 하고, 박근혜 퇴진 운동도 하고 그런 때라 집회가 있으면 항상 참가했죠.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한다) 사실 저희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저희 뒷세대부터는 학생이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는 게 터부시되고, 쿨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가 생겼죠. (보다 강한 어조로) 학생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렇고,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내고 학교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학생회의 역할인데 그게 많이 퇴색됐어요. 졸업 후 열심히 농업 운동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씁쓸하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력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던 저였는데요.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어조였지만 민영주는 잠시 침묵을 지킨다. 대신 그는 노트북을 조작한다. 잠시 후 스크린에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2024년 12월 3일의 보도 화면, 무장한 채 국회로 진입하는 군인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담은 사진이 차례로 떠오른다.

민영주: (심각한 표정과 어조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실상 내란이죠. 국민에게 총을 겨눈. (조금 어이가 없다는 표정과 목소리로)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계엄을 하지? 말이 안 된다. 진짜인가? 이걸 하네? 이게 되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것을 규탄하기 위해 투쟁을 하다, 저는 만나버리고 만 거예요. (잠시 뜬눈을 듣는다, 진지한 얼굴로) 남태령을요.

민영주는 잠시 노트북을 덮고 그 위에 붙어 있는 스티커들을 바라본다. 민영주의 시선을 따라 응원봉을 든 여성의 모습을 그린 스티커, ‘다시 만들 세계’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 ‘남태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차례로 민영주 뒤 스크린에 비춰진다. 일 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무대가 잠시 암전된다.

-제2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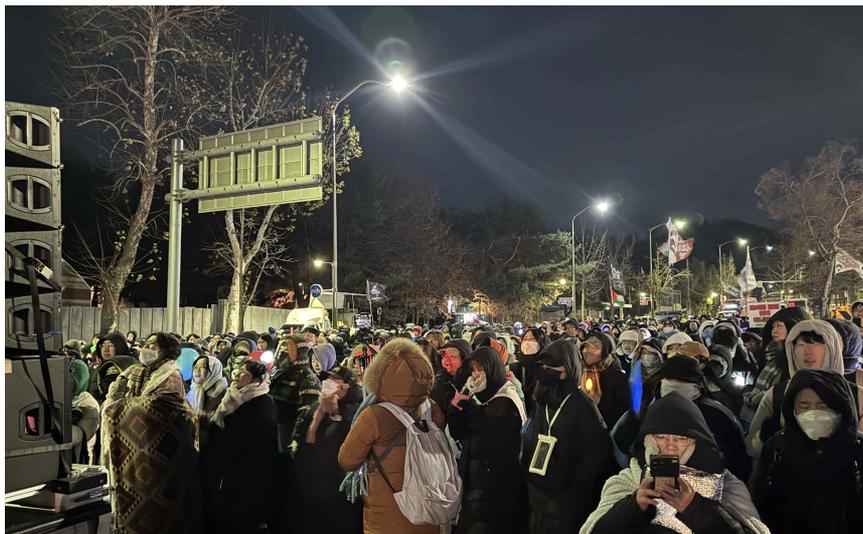
무대 위 조명과 스크린이 동시에 켜진다. 스크린에 사진이 하나 떠오른다.



[그림 3-9] 남태령에서 대치 중인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와 경찰

민영주: 여러분, 지난 2024년 12월 21일, 동지날을 기억하시나요? 윤석열을 규탄하기 위해 전남, 경남에서부터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향한 전봉준 투쟁단¹²⁾이 남태령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전까지는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순조롭게 올 수 있었는데, 남태령에서 딱 막혔어요. 폭력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트랙터가 부서질 정도였어요. (눈을 감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짓는다) 큰일이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마다 광화문, 안국에서 열린 집회가 있었잖아요? 트위터에서 이 폭력 진압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행진을 하다 그대로 남태령으로 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오후까지 농민과 시민이 연대 투쟁하다, 트랙터 일부가 한남동 관저까지 이동하며 시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남태령에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층 더 진지한 목소리로)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민영주, 노트북을 조작해, 스크린에 무언가를 띄운다.



[그림 3-10] 남태령에 모인 시민들

12) 전국농민회총연합(이하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민영주: 집회 나가 보신 분 계신가요? (잠시 뜬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 가서 사진이나 영상도 한 번쯤 찍고 그러셨죠? (대답을 기다리듯 잠시 말을 멈췄다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저도 남태령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태령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라는 예감이 있었어요. (몇 걸음 걷다) 사실 기록을 한다면 저밖에 없다고, 이 상황에 대해 두 가지 시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저일 거라고, 당시에는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농민분들? 사실 많이 놀라셨어요. 사실 아직도 남태령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아직 꽤 계세요. 애초에 트위터니, 에스엔에스¹³⁾니,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남태령에 달려오신 시민분들도 농민분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 남태령까지 트랙터를 몰고 왔는지 정확히는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할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내가 기록해야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고 거기 대해 증명해낼 수 있고, 이 중요한 순간을 역사로 이어갈 수 있다.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았죠.

민영주, 숨을 고르고 무대 위를 몇 걸음 걷는다.

민영주: 저는 소위 말하는 헤비 트위터리안¹⁴⁾입니다. (분위기를 풀듯 장난스럽게 미소짓는다) 무슨 일 있으면 트위터에 올리고, 이게 맞냐, 그런 말을 할 때 많이 사용했죠. (소리내어 잠시 웃는다) 제가 기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트위터가 익숙하다 보니 남태령 기록을 모으는 용도의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내 트위터를 잘 갈무리하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면 좋은 자료가 되겠거니 하고. 그런데 제가 아는 영화 감독님 한 분이 제안을 해 주셨어요. 아카이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도움이 될 분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기록학과 선생님들이셨는데, 많이 배

13) SNS. 소셜 미디어를 달리 부르는 말.

14) 트위터 이용자를 부르는 애칭이다.

웠죠. (손으로 가상의 통을 만들듯) 정보만 한 통에 담는다고 아카이빙이 아니라, (분류하듯 가상의 통을 작게 쪼개는 동작을 한다) 잘 분류하고 정리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걸 통해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꺼내볼 수 있어야 진짜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다고요. 또 그분들이랑 심포지엄 준비도 같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 이게 가지는 의미가 생각보다 더 크구나 생각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기록이 없으면 진실이 묻히고, 전유되고 오염되기 쉬우니까요.

민영주는 인터넷 창을 열어 무언가를 검색한다. 화면이 몇 번 바뀐다.



[그림 3-11] 남태령 기록보관소의 전농 공식 라이브 영상 제보 요청 (남태령 기록보관소, 2025)

민영주: 당시 남태령의 모습을 담은 라이브 영상이 사실 제일 중요한 기록인데요. 사실 한번 없어졌었어요. 18시간짜리 라이브 영상이 그대로 날아가 버려서, 패닉이었어요. (허탈하게 웃는다) 그래서 다른 시민들, 유튜버의 기록, 영상자료를 모아서 그 공백을 조각보처럼 연결해서 현장을 재구성해보자,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다행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시민분의 제보로 이 불가능일 것 같던 프로젝트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안도의 미소를 짓는다) 라이브가 끝나면 바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습관적으로 녹화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중 한 분께서 감사하게도 제보를 해 주셔서. (이번에는 보다 밝게 웃는다) 원래 이

름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부끄러워 하셔서, 작물 한 박스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도 사실 시민 기록이라는 게 온전히 혼자 다 기록한다기보다는, 여러 시민들이 모여 조각보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남태령 관련 기록은 힘닿는 대로 수집했어요. 남태령 아카이브에 사용할 것이라고 해서 시민 제보도 받고요. 엄청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자유발언이나 현장 상황에 대한 개인 구술 기록도 직접 녹음하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제보를 받아 음성을 추출하고, 녹취기록을 작성하는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민 제보를 받을 때는 파일에 메일 주소, 성명, 연락처 같은 것을 같이 기입해 뒀어요. 또 파일이 복사되거나 변형된 게 아닌 메타데이터가 살아있는 원본으로 주로 받았습시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태령 기록보관소 계정으로 리트윗하고, (손을 양쪽으로 펼쳤다) 남태령 관련 정보는 사실상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며) 다 저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난방버스 최초 제안도 트위터 쪽지로 들어오고. 그래서 제 타임라인, 쪽지함도 정리했죠. 사실 남태령의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고 시민연대 활동의 역동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트위터를 검토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하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제가 제보받은 사진과 영상을 정리했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녁부터 오후 열 시까지. 특정 시간에 몰려있어요. 왜냐면 핸드폰이 다 꺼진 거야. 일단 충전, 주변에 충전할 데도 없고. 사람들이 급하게 나왔고 거기서 밤을 썰 줄 몰랐으니까. 저는 계속 있으면서 상황을 트위터로 전달해야 하니까 보조배터리를 많이 들고 왔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까지 대비를 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기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복되는 게 많아서 선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도 당시 자유발언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게 했어요.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특히나 남태령 자유발언은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거기 응답하는 청중의 연쇄작용이 특징입니다. 녹취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타 현장과 남태령 현장에서의 자유발언의 성격이 다르다고 많이 말하시고요. 그래서 더 다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장의 성격이나, 정동적 변화를 전달하기도 좋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정말 급하게 했고, 야생이었죠. 또 4월 4일 파면이

되기 전까지 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아예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할 건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작업했던 것 같아요.

민영주는 화면의 스크롤을 내린다. 남태령과 관련된 다양한 ‘트윗’들이 화면을 스쳐지나간다.

민영주: 이번 남태령은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남태령은 굉장히 고립된 장소거든요. 역은 있지만 텅 빈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느낌. (조금 허탈한 기분이 드러나게 소리내어 웃는다) 그런데 서울에서 기획된 집회, 조직된 사람들이 아닌데도 자율적으로 연대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 점 이죠. 이용자가 직접 쓴 글이 트윗, 그걸 공유한 게 리트윗인데, 이것들이 한데 뒤섞인 타임라인에서는 폭발적인 양의 정보가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런 흐름에 익숙한 저도 이 물결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반응이었죠. 그게 남태령에서의 아름다운 시민연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았죠. 당시 계시지 않았던 분들도 다음 날에라도 많이 와 주시고, 남태령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도 생기고. 나중에 1월 초 민주노총 집회 키세스단이나, 그때 언론 취재가 는 것도 남태령의 여파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폄하하는 사람들은 너희 무슨 돈 받고 하나? 배후가 있냐? 이런 질문도 많이들 하시지만, 누가 시켜서 하면 거기 못 가죠. (너털웃음) 그래서 사건 개요도 중요하지만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할과 광장의 순기능, 거기서 느낄 수 있었던 시민연대, 돌봄, 공동체의 회복과 같은 면모까지 기록에 담길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남태령을 좋게 생각하는 게 거기서 느낀 감정 같은 것도 크잖아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남태령에서 감동받아서 말벌 시민이 되고 연대가 필요한 곳에 달려가는. 그런 것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일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위험한 상황도 많았죠. 그리고 저는 트위터에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사이버불링도 당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남겼습니다. 저는 안 좋은 부분까지 기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영주, 무대 중앙에 서서 잠시 숨을 돌리다 다시 기운을 찾은 몸짓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민영주: 그리고 이렇게 현재 모은 자료들의 경우, 동영상이나 사진, 트윗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 외장하드에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제머나이소프 트에서 나온 마이마이라는 아카이빙 프로그램도 활용해서 양쪽에 백업 중이고요. 온라인에 아카이브를 보여주는 것도 생각보다 (해탈한 듯한 웃음소리를 섞으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더라고요. 나중에 협력 사업이 생기면 함께 할 수 있는데 제 능력으로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저의 트위터 개인 계정, 또 아카이브 계정의 타임라인을 시각화할 수 있게 트윗 조회수나 반응수 같은 걸 엑셀(당시의 기억이 떠오른 듯 역시 해탈한 듯한 웃음소리를 섞으며 말을 잇는다)로 정리했어요. (아쉬움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그리고 이걸 해외에서 소셜 미디어 연구를 하면서, 트위터를 중심으로 남태령 아카이브를 구축 중인 선생님과 연이 닿으며 알게 된 얘기인데요.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고 이용자 데이터 활용 정책이 바뀌고 어마어마한 가격을 붙이는 바람에 수작업을 해야 되는 (어이가 없는 듯 웃는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카이빙한 결과물을 세상에 보여주려면 돈과 인력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것. (조금 시니컬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톤으로)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웃음소리를 섞으며) 많지가 않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됐죠. 개인이나 영세한 곳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다시 조금 차분한 목소리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책 출판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판을 하면 책이 돼서 도서관에 남을 거고요. 책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하게 그 기록을 남길 수 있어서 자꾸 그렇게 출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출판이 (웃음소리를 섞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인기가 있고, 기록의 보존이라든지, 권위도 확실히 단행본이 갖는 힘이 (한 템포 쉬었다 명료한 어조로)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죠. 물론 책 만들기가 끝이 아니니, 이런 시민 기록 활동도 의제화해서 정치적, 제도적인

협력이 생긴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단행본 작업을 하면서 농민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는 게 좋겠다, 그런 조언을 들어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한 번 어쩔 수 없다는 듯 웃는다) 몇 감독님들이 아 그 인터뷰를 꼭 영상화했으면 좋겠다,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영상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또다시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일이 커지고 그 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 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서 그런 것들이 남으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 남긴 자료들을 토대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얘기하면 그게 남겠죠.

민영주, 잠시 말없이 숨을 고르다 다시 말을 이어간다.

민영주: 기록 작업을 하시는 다양한 시민분들을 보면서 금전적 지원이나, 시민단체에 양도하자, 그런 얘기도 종종 나오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전농, 전여농 선생님들이 주체가 되어 조직의 활동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남태령 투쟁의 원인이자 당사자 분들이시니까. 근데, 이 분들이 일단 (너털웃음) 너무 바쁘세요. 그리고, 이후의 투쟁과 관련된 일도 계속 하시고, 조직이 엄청나게 풍요로운 예산을 갖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작업물은 어느 정도는 전농, 전여농, 농민의 길, 이쪽 기록의 일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무대가 암전된다.

-제3장-

다시 무대 위 조명이 켜지며 민영주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다.

민영주: 지금부터는 이 작업을 돌이키면서, 거기서 느낀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한 건, 앞서 말했다시피 (강조하듯) 저라서, 농민과 시민의 시각을 모두 아는 저라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아 정말 기록을 제대로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22일 이후에, 서울경찰청장이 행안위 국회 질문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는다) 농민들이 술 먹었다. 뒤에는 안 막았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살짝 흥분한 목소리로) 야 이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저 사람 말이 진짜인 것처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 언론에서도 남태령에 모인 농민, 시민들이 폭도다,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실이 아닌데. 바로잡아야 하잖아요. 또 나중에, 남태령같은 하나의 상징이 됐죠. 민주노총 집회의 아이콘이었던 은박담요 덮은 키세스 부대도 이제 극우 세력에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합성되고, 전유되고, 그랬거든요. 돈 받고 왔지, 그런 말도 많이 듣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 특정 당, 또 이렇게 집회 참석한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보다 명료한 어조로) 이런 일들이 있기에 오히려 기록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경험, 감정,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신문 기사나 보도된 것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야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 오피셜한 언론이 이번 광장에서 그 역할을 잘 못했잖아요. 박근혜 퇴진 시위 때는 관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뉴스에 계속 나왔거든요. 광장에 나온 사람들의 인파나 촛불 시위 모습이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 이번 언론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뉴스만 보면 서울에서 그런 큰 집회가 열리는지도 모를 상황이었고, 오피셜한 기록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록한 게 중요한 광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록을 남기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정확히 기록해서 이 기록을 다시 찾아보고 연구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민영주, 노트북을 조작하여 한 트윗을 스크린에 띄운다. “남태령에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 배달음식은 이미 많대요. 난방버스 후원 모집하고 있어요.”라고 적힌 트윗이다. 그 후에 몇 번 더 노트북을 조작하자, 남태령에 모인 시민들을 촬영한 또다른 사진이 스크린에 떠오른다.



[그림 3-12] 오전 시간대, ‘바톤터치’를 위해 남태령에 온 시민들

민영주: 그날 엄청 춥고, 힘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와중에 난방 버스 보내고, 물건 보내고, 바톤터치 하면서 시민 연대가 자연스럽게 생긴 부분이라든지, 자유발언에서의 다양한, 귀한 발언들과 거기서 나오는 의미들. 이런 좋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현장에서. 그리고 광장의 정치는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 잘 살리면 한국 민주주의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시민사회운동에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또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남태령이 기록되어 있으면 자유발언 분석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현장이 잘 기록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주 살짝 더 강한 어조로) 기록 투쟁이잖아요, 그동안의 근현대사는. 사회적인 큰 사건마다 기록에 대한 치열한 싸움, 힘겨루기였죠. 광주부터, 학생 운동, 민주화 운동, 국가적 참사나 재난. 이런 곳에서도 기

룩에 대한 투쟁을 해 왔고, 이제는, (잠시 생각하다) 기록이 잘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민영주, 무대 위를 몇 걸음 걷다 말을 잇는다.

민영주: 제가 남태령을 기록하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었던 건, 남태령 투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왜곡 없이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남태령에 직접 오지 않았어도 현장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남태령이라는 현장을 제가 기록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남기기는 했겠지만, 디테일한 부분, 맥락은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민분들이 그 전말을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보통 취재를 하면 지도부, 책임자한테 사건 전말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분들이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투쟁이 가능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채우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안했죠. (조금 가라앉은 듯하면서도 결연한 얼굴로) 이걸 잘 기록하지 않으면 남태령이 금방 잊혀질 수도 있겠다. 혹은 너무 신화나 전설같은 게 될까봐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실제로 강연을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들 좋아하시죠. (잠시 생각하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자면, 그렇게 함으로써 남태령 자체의 그 가치도 있지만,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사회적인 민주화라든지, 사회 공동체와 같은 좋은 가치를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영주, 미소를 지으며 잠시 객석을 바라보다,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린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이미지가 떠 있다.



[그림 3-13] 한강진에서 행진하는 트랙터를 보며 환호하는 시민들

민영주: 이 사진은 한강진에서 트랙터 행진을 보며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밤새워 투쟁한 결실이었어요. 굉장히 뭉클했죠. 광장 이후에도 제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작년 퇴진 광장에서 다양한 현장들이 있었는데 남태령이 갖고 있는 특성과 감동, 그런 게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템포 짧게 멈췄다) 우리가 사회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에는 사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광주민주화운동, 이런 역사적인 순간들에서 배우잖아요, 우리도 후세들에게 그렇게 전해주면 좋겠다. 결국에는 민주적인 운동이라든지, 광장의 평등에 대한 얘기, 또 소외된 사람들이 연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상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민주화 운동의 연장인 것 같아요. 먼 미래에 누가 이 아카이브를 본다면, 우리 전에도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거 다 있었고, 그래서 남태령 투쟁,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었고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니까 잘 보존되어서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보다 명료한 어조로) 사실 이게 시민 기록을 하는 이유겠죠. 진짜 나중에, 소문으로도 남태령을 들은 사람이 없을 때, 다 죽었을 때. 구전 설화로 내려

오는 것 말고,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려고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래 세대가 봐야지. 그래서 저는 남태령이 역사 교과서에 한 문장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3 내란과 시민 저항의 과정에서 남태령이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사가 교육되는 한 유지가 되겠다. 그런 포부는 있죠. 그 정도는 기록이 돼야지, 그런 생각.

민영주는 단상 위에 놓인 노트북으로 돌아간다. 스크린에는 다시 한 번 민영주의 노트북 뒷면에 붙은 스티커들이 비춰진다.

민영주: 개인적으로는 (잠시 생각하듯 침묵하다) 남태령이라는 현장을 기록함에 있어 농민이자 청년인 저의 정체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정체성은 처음에 말했듯 농민, 활동가, 활자 노동자이고요. (한 템포 짧게 쉬고) 또 학자이기도 했죠. 철학과 석사 졸업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많이 배우기도 했고, 업그레이드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생각하는 얼굴을 하다) 전에 청년 농업인 조직 활동을 하며 정책 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 조직 구성, 조직원이 달라져도 정책 자료들은 쌓이니까. 그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기를 원해서 나름의 아카이브를 구축한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아카이빙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제가 기록한 걸 모아둔 드라이브를 갖고 있는 정도였는데,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 남태령 작업을 하면서, 기록, 시민기록에 대한 개론 수업을 들은 기분이 드네요.

민영주, 잠시 생각하듯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을 잇는다.

민영주: 또 한편으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인 역할이거든요. 정체성이 다양하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한국의 사회 분위기는 이런 중간자들을 박쥐, 변절자, 회색분자,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다 욕하거든요. 또 광장 이후의 청년 여성들, 그들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저는 정당 정치에도, 농

업에도 받을 담근 청년 여성이니까 이 셋을 다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중간에서 다양한 입장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주사회가 만들어지니까요.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잠시 뜸을 들이다) 기록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농사만 짓고 살았더라면, 이런 기록 활동을 했겠어요? 저는 일종의 농민과 시민 사이 통역가인 셈이죠. (한 번 크게 웃는다) 기록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기 위해 기록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룰 수 있게, 전문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소양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셜한 기록조차도 보존이나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그런데 이게 안 됐다고? 하는 충격이 있었죠. 여러모로, 기록이라는 데 투자도 되고, 보완도 되고, 활동하는 데 있어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위터도 일론 머스크 인수 이후로 많이 망가졌거든요. (착잡한 목소리로) 자본에만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이번에 많이 느꼈죠.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 보다 밝은 어조로) 절망적인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식민지 역사박물관에서도 깃발들 전시도 하고, 아카이빙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 면에서 기록 분야든 민주주의든, 이런 큰일을 겪을 때마다 (조금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한 번씩 이렇게 혹 발전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록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달성하는 큰 역할을 해줬잖아요? 5·18 민주화 운동도, 기록이 없었으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을 거고. 시민들의 기록이나 소식을 알리는 활동이 없었다면 진짜 폭동이었던 것처럼 기억됐겠죠. (담담한 목소리로)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은 기록이 더 진실에 가깝기도 하고, 현장에서의 영향력, 의미는 오피셜보다는 거기 참여한 사람, 당사자들이 기록한 것들이 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보는 편이죠. 특히나 요즘은 손쉽게 사진을 찍고, 남길 수 있는 시대니까요. 시민들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민주화가 독재

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기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주, 무대 가운데로 다시 이동한다. 후련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객석을 바라본다.

민영주: 남태령 대첩의 한복판에서 너무나 강렬한 경험을 했고, 이로 인해 삶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 저와 같은 변화를 느끼신 분들과 연결되고, 조언을 듣거나 도움을 받고, 감사인사도 듣고 하면서 연대감을 느낀 것도 작업하면서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을 다니고 지역에서 활동도 하는데, 이 기록이나 아카이빙한 결과물은 물론,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작게나마 좋은 영향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죠. 희망도 느끼고요. (한 템포 쉬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태령 투쟁을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이 남태령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서는 역사에도 남고, 우리의 투쟁의 기록과 민주주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도 전달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다양한 학제에서 이번 광장, 남태령, 한남동, (다양한 투쟁의 현장을 떠올리듯 잠시 말을 멈춘다) 그런 걸 최대한 많이 연구하고 해석하고 어떤 의견이든 많이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내 연구만 들여다보면 이게 연구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있다. (조금 장난스럽게) 그냥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게 제 기대에는 약간 못 미쳐요. (무대 위를 천천히 걸으며) 광장이 끝나면 책도 많이 나오고, 연구 결과도 많이, 즉각적으로 쏟아져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기 의견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인지, 이미 나온 얘기에 굳이 한 마디 더 얹어봤자다, 그런 생각하시는 학자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로 더 많이 기록을 남기고, 퍼뜨리고, 얘기하고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지가 담긴 단호한 어조지만 약간의 장난스러움이 어려 있다) 제발 그래주세요.

민영주, 얇은 미소를 지으며 객석을 바라본다.

민영주: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재밌으셨을까요? (잠시 객석의 응답을 기다린다) 감사합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세상이 다 바뀌길 바라는 것도 욕심이고, 나나 잘 살고, 주변 사람이나 잘 챙기고, 그런 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저희가 죽기 전 유토피아가 오겠어요? 계속 이렇게 굴러가겠지. 그냥 세상은 이럴 테지만 할 수 있는 건 하고, 인간이길 포기하지 말자. 여자 자존심이 있지.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민영주, 객석을 향해 정중히 인사한다. 민영주, 천천히 퇴장한다. 민영주의 노트북 뒷면은 스크린에 계속 비치고 있다. 스티커 중, ‘남태령’ 스티커가 zoom 인되어 스크린 전체를 차지한다. 잠시 후, 무대가 암전된다.

제 4 장 시민 기록가들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의미

지금까지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기록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만났다. 이들은 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 그들에게 있어 기록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의 기록 활동이 기록학과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가지는 가치는 무엇일까?

이 장에서 제시하는 논의는 시민 기록을 단순한 개인적 기록 행위나 자발적 참여의 결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기억, 정동, 정치성, 주체성의 문제로 확장하여 재정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1 절 기록하기로 한 이유: 망각에 저항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많은 시민들에게 공포, 분노, 혼란을 야기한 신체적, 심리적인 재난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기록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 역시 이러한 정서적 충격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비상계엄 자체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은 남아 있다. 하지만 그런 위험 속에서도 투쟁하는 사람들과 그 흔적은, 남기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사실을 왜곡할 것이고, 거기에 대응할 증거가 마땅히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메이저 언론은 이에 대해 침묵하거나, 오히려 사실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 내가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이 연구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정서이다. 그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 침묵에 저항하고자 했다.

기록학에서 기록은 보통 활동의 증거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시민 기록가들에게 기록은 ‘생존을 위한 외침’이었다. 민이현은 박근혜 탄핵 집회 시절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 외에도 집회 진행을 위해 힘쓴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기록하지 못한 점을 후회했다. 이는

그들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혹은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오해받고 공격당했음에도 이를 방어할 증거, 즉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이현은 이 경험을 이야기하며 후회와 원망을 보였고, “기록했더라면, 뭔가 달라졌을까.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기록으로 말하고 싶었다”는 마음을 밝혔다.

민영주 역시 남태령 투쟁이 권력자와 언론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 거짓이 진실을 대체할 수 있음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기록이 없으면, 진실이 묻히고, 전유되고, 오염되기 쉬워진다”. 그렇기에 민영주는 자신이 이것을 기록해야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고 증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정아는 덕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어했고, 광장에 서의 시민 참여가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기록을 통해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꼈다. 그는 “힘있는 사람이 아닌 우리 곁의 평범한 사람들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무릅쓰고 나온 사람들이 하려는 말을, 그들의 마음을 듣고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록 활동에 나섰다.

Eric Ketelaar(1999)은 ‘Archivalization’(흔히 ‘기록화’로 번역된다)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며, 이를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을 고려하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선택”으로 정의한다. 이 때, 이 선택은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 표준과 가치,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치관은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겠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관과 판단을 바탕으로 무엇을 기록화할지 ‘선택’했다. 나아가 그들은 기록의 부재로 발생하는 침묵에 저항하고자 했다. Ketelaar(1999)에 따르면, 아카이브는 특정 기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과거를 침묵시킨다’. 연구 참여자들은 언론과 행정기관이 지금 이 순간 시민들의 모습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현재를 침묵시키고 진실을 왜곡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느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식적인 기록만으로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증거적 어포던스(Yeo, 2007)’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루머와 가짜뉴스에 대한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활동의 흔적을 기록에 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증거로서 활용하고자 했다.

이들의 기록은 공통적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고, 이런 일을 했으며, 이렇게 느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단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을 남긴 것만은 아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의 기록 활동에 대해 “내가 정한 주인공으로 나만의 역사를 쓰는 일”, “시민이 이끌어낸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부적”, “이 중요한 순간을 역사로 이어갈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기록은 왜곡으로부터 진실을 지키는 ‘방패’였고, 우리의 존재와 희망을 역사에 각인시키는 ‘부적’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활동과 경험이 기록이라는 형태로 현재의 사회적 기억 속에 자리 잡고, 미래에도 다시 부름받기를 바랐다.

기억은 개인 내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재구성된다. 기록은 이러한 기억을 외부화하는 도구이며, 기록을 통해 특정한 기억은 공동체의 내러티브로 편입된다(설문원, 2021b; 2025). 민이현이 말한 “나와 우리의 역사”, 민정아가 강조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민영주가 남기고자 한 “남태령 투쟁과 거기 담긴 민주적 가치”는 모두 시민이 자신을 공동체의 역사 속 주체로 위치시키려는 시도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민 기록은 기억을 보존하는 행위라기보다, 누가 기억될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적 실천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 2 절 기록이 가지는 의미: 우리를 묶어주는 정동의 끈

제1절에서 말했듯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시민 기록가들이 기록 활동에 나서게 된 정서적 충격이자 계기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기록을 남기겠다고 결심하고, 기록 활동을 하고, 이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들의 경험을 지배하는 것은 정동(affect)이다. 그들은 기록을 통해 기억되어야 하는 사건을 남기는 것을 넘어, 사건과 행위 안의 정서적 측면까지 남기며 보다 생생한 기억을 남기고 연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기록에서의 정동은 개인이 공통의 사회적 의제에 대해 공감할 때 느끼는 정서적 변화이자(이경래, 이광석, 2017), 기록의 동기를 유발하고, 트라우마나 분노를 유발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다(이경래, 2022). 감정은 개인적이고 일

방적인 경험이지만, 정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는 감각’이며, 쌍방향적이고, 존재의 변용(affectation)을 동반한다(배은희, 설문원, 2024). 기록은 이 정동을 포착하고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경험을 집단적 감각으로 확장한다.

민이현은 집회 현장에서 생성되는 긴장감, 분노, 해방감이 기록에 담길 때 비로소 그 기록이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했다. 과거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록을 선택한 그의 행위는, 기록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다루고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한편 민이현이 사진의 형태로 기록한 깃발들에는 당시 시민들이 공유한 정동이 인터넷 밈을 활용한 짧은 문구와 이미지 안에 함축되어 있다. 밈은 이를 향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정서적 공명을 일으킨다. 집회 현장 속 깃발에 녹아든 밈은 자칫 무겁고 공포스러울 수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사회적 경험을 시민들이 해학과 연대의 정동으로 변환시키는 시각적 촉매가 된다. 민이현은 깃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밈을 기록하며 텍스트만으로는 정하기 어려운 현장의 정동을 남기고자 했다.

민영주의 기록 역시 정동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남태령이라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집중한 그의 기록은, 현장에 없었던 이들로 하여금 당시의 긴박함과 연대의 감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민영주는 사진만이 아니라 동영상도 통해 현장의 음성,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담고자 했다. 또한, 민영주는 남태령 자유발언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즉흥적인 연쇄작용’이 현장에 가져온 정동적 변화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녹취기록 생산과 시민 제보를 통해 최대한 모든 자유발언을 기록하고자 했다. 농민과 시민,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이들이 위기감, 분노라는 감정으로 모여 연대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정동을 기록함으로써, 민영주는 기록을 관계 형성의 매개물로 기능하게 했다.

민정아의 경우, 인터뷰라는 방식으로 타인의 경험과 감정을 깊이 마주하면서 정동의 전이를 경험했다. 민정아는 그의 저서에서 인터뷰이의 이야기를 듣고 생긴 자신 내면의 변화와 감상 역시 진솔하게 표현한다. 인터뷰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밝지만은 않다. 다양한 형태의 힘겨운 삶에 고통받으며, 약자성, 소수자성, 그리고 아픈 기억들로 구성된 이야기가 민정아에게 전해졌다. 인터뷰이들의 삶을 알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민정아는 시민 기록가로서 당사자성

을 획득하였다.

민정아는 덕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이 깊어지고 애정이 생겼다”고 말하며, 자신의 인식과 삶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반복해서 언급한다. 그의 저서에는 각각의 인터뷰이와의 만남과 대화에서 느낀 감탄과 반성이 진솔히 담겨있다. 민정아는 인터뷰이의 경험에서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동, 기록 작업을 통해 형성된 희망과 예찬의 정동을 그의 저서에 담으며 기록을 이용하는 독자 또한 적극적으로 이 정동의 파도 속으로 초대하고자 한다. 이는 기록 대상자의 정동이 기록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변화가 다시 기록에 반영되는 순환적 과정을 이끌어내며 이 순환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경래(2022)가 4.16 기억저장소의 사례를 분석하며 얻은 통찰을 이번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시민 기록가는 기록활동을 통해 타인의 삶에 관여하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해당 사건의 기록화와 관련해 기록가가 당사자성을 획득할 수 있게 이끈다. 당사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며, 이에 더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것이 당사자성 획득이다. 기록 대상자와 관계를 맺으며 발생한 정동적 변화는 시민 기록가의 인식 및 존재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민 기록가를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시킨다. 이는 시민 기록가 개인이 당사자성을 획득하도록 이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자각이 향상되고 이는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배은희, 설문원, 2024).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는 Caswell과 Cifor(2016)가 말한 ‘정동의 아카이브’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시민 기록 실천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 기록은 고통과 분노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감과 연대의 가능성을 조직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동을 기록함으로써, 기록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서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기록은 제1절에서 이야기한 왜곡에 대항하는 증거, 자신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남기는 도구이자 행위를 넘어 다양한 정동을 담아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고 사회구성원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제 3 절 시민 기록 활동의 가치: 공백을 채우는 대항기억

전통적으로 기록은 국가와 권력 기관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지배 계급은 특정한 기록만을 보존하며 소외된 기록의 주체의 기억, 정체성까지도 소외시킴으로써 지배계급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기록과 아카이브를 활용했다(Ketelaar, 1999; 윤은하, 2011). 국가는 공식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도구로 기록과 아카이브를 활용했다. 기록 관리는 기록에 담긴 내러티브, 즉 기관, 공동체, 집단이 말하고자 하는 내러티브를 통제한다(설문원, 2025).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는 오랫동안 기록의 주체가 아니라 기록되는 대상, 즉 객체였다(Ketelaar, 1999; 윤은하, 2012).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민이현은 광장의 다양한 ‘말풍선’과 활동을 기록함으로써, 시민이 단순한 동원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민정아는 ‘덕후’라는 주변화된 정체성을 지닌 시민들의 삶과 “시민들이 이끌어낸 역사”를 기록하며 누가 기록될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했다. 민영주는 ‘남태령 투쟁’이라는 국가 권력의 서사와 충돌할 수 있는 기록을 시민의 손으로 구축함으로써, 기록의 주체가 시민에게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은 기록화(archivalization)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했다. 무엇을 기록할지, 어떻게 남길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둘지는 모두 시민 기록가의 판단이었다. 이는 시민이 기록의 객체에서 벗어나 기억 생산의 주체로 서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 환경의 발전 때문만이 아니라, 기록 행위가 시민의 자기 인식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민 기록은 공식 기록이 남기지 못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 기록은 공식적인 역사에서 배제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기록함으로써 망각에 저항하고 왜곡에 맞서는 대항기억(counter-memory)을 남기는 도구로 작동한다(이경래, 이광석, 2017). 기록과 아카이브에 담긴 집단 기억을 유지 및 공유하며 관료제 국가의 행정권력을 견제할 때 기록과 아카이브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다각도로 제공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한다(장대환,

2019).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남긴 기록은 특정 사건의 부수적 자료가 아니라, 동시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해석의 단서이자, 공론장에서의 건강한 토론을 위한 논거가 된다. 공식 기록이라는 단일한 수종(樹種)만으로는 숲을 이룰 수 없듯, 우리 사회의 기억 또한 수많은 시민이 남긴 각기 다른 기록들을 통해 비로소 건강한 기억의 생태계를 형성한다.

결국, 시민 기록은 민주주의의 주변부에서 이루어지는 부차적 활동이 아니다. 시민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공유하며, 해석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기록은 그 자체로 시민이 사회에 참여하고, 연대하며,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 된다.

제 4 절 소결: 시민 기록은 끊임없는 과정이자 질문이다

이 장에서 살펴본 시민 기록가들의 이야기는 시민 기록을 단순한 개인적 실천이나 자발적 참여의 결과로 환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록을 통해 기억을 둘러싼 투쟁에 참여했고, 정동을 매개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를 기록의 주체로 위치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민 기록은 사실을 남기는 수단을 넘어, 존재를 증명하고, 침묵에 저항하며, 연대를 형성하는 민주적 실천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도달한 결론은 시민 기록이 모든 것을 포착하거나, 완전한 진실을 재현할 수 있다는 낙관에 있지 않다. 시민 기록 역시 언제나 불완전하며, 특정한 관점과 위치성 속에서 생산된다. 기록되지 못한 순간과 말해지지 않은 목소리는 언제나 여백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기록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불완전함이 기록 행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민 기록은 불완전하기에 계속해서 덧붙여지고, 다시 읽히며,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시민 기록은 완결된 결과물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을 향해 열려 있는 과정으로 드러난다. 참여자들이 남긴 기록은 하나의 정답이나 단일한 서사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들은 다음의 질문을 남긴다. 누가 기억되는가, 무엇이 사라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기억하고 싶은가. 이러

한 질문은 기록이 생성되는 순간에 끝나지 않고, 기록을 읽고 해석하는 미래의 시민들에게로 넘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 기록은 민주주의의 주변부에 위치한 보조적 활동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갱신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기록은 망각에 맞서며, 동시에 새로운 해석과 참여를 요청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시민 기록의 불완전성과 개방성, 즉 ‘환대’의 성격을 출발점으로 삼아, 기록과 망각, 기억과 여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제 5 장 결론: 이야기를 마치며

이 연구는 시민 기록가 세 명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시민이 스스로 기록의 주체로 등장할 때 기록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구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신과 동료 시민들의 삶, 감정, 행동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들은 ‘탱커이자 힐러’, 또한 ‘연결다리’로서 적극적으로 기록 행위에 나서며, 기록에 담긴 ‘우리의 역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부적’이 되기를 바랐다. 그들이 남기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기억과 정동이 결합된 삶의 궤적이었다. 이러한 시민 기록은 시민이 기록의 객체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구성하고, 공식 기록이 포착하지 못한 대항기억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광장의 노동, ‘덕후’로 불리는 시민들의 참여, 남태령에서 형성된 농민과 시민의 연대는 모두 주류 언론과 공식 기록이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던 장면들이다. 그러나 이 장면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통과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시민 기록가들은 이러한 장면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기록은 기억을 보존하는 수단이자 정치적 실천이 되었다.

그러나 기록은 망각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 Paul Ricœur는 기억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유적이고 불완전한 방식으로 호출된다고 지적한다(손영창, 2024). Jacques Derrida(1995)에 따르면 우리가 기록을 통해 재현한다고 믿는 것은 실재가 아니라 재(Ash), 즉 흔적이다. 아카이브는 살아 있는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기억의 흔적을 외부에 위탁한 보조 장치에 불과하다. 기록에는 언제나 포착되지 못한 여백이 남고, 이 여백은 유령처럼 존재와 부재 사이를 배회한다.

그렇다면 기록하고 기억하는 행위는 무의미한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여백과 불완전성이야말로 기록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 아카이브는 닫힌 저장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린 공간이다. 기록의 여백이라는 유령은 고정된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과 추가를 환대하는 초대자다. 누가, 언제, 어떤 관점에서 기록을 다시 읽느냐에 따라 그 여백은 다른 의미를 생성한다. 이

여백을 통해 기록은 완결된 결과물이 아닌, 계속해서 갱신되는 과정이 된다.

개별 시민이 모든 것을 기록할 수는 없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각자가 가진 서로 다른 경험과 위치성 때문에 기록은 언제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이 남긴 기록은 퍼즐 조각처럼 서로를 보완한다. 각각은 불완전할지라도, 조각이 늘어날수록 사회의 모습은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퍼즐은 현재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미래의 시민에게 전해질 수 있는 공동의 유산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록의 불완전성은 기록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기록이 필요함을 요청하는 조건이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라는 방법론의 특성상 소수의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며, 그 결과를 시민 기록 활동 전반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연구텍스트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연구자가 다시 구성하고 해석한 이중 해석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동시에 강점이기도 하다. 이 텍스트는 단일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독자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연구의 출발점에서 나는 기록의 정의가 너무도 다양해 혼란을 느끼는 연구자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내가 도달한 결론은, 기록의 정의가 하나로 고정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기록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시민 기록은 시민이 기록의 주체로 서는 순간 발생하며, 정동과 결합될 때 더욱 풍부한 의미를 획득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과정 역시 시민 기록의 일부이며, 그 충돌까지 포함해 민주주의는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뿐 아니라 연구자인 나 자신에게도 변화를 남겼다. 나는 시민 기록가들의 분투 속에서 기록을 남긴다는 행위가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사회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를 보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역시 이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은지, 어떤 기록의 주체가 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가 남긴 작은 균열 속으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그 빛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마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경향신문. (2016.09.24.) 부디 다시 상태가 좋아지길 기도합니다. [Facebook status update]. Facebook.

<https://www.facebook.com/100064541386131/posts/1254861831220083/?rdid=2xFQxDd9p5AuoMWV>. (2025.11.07.)

국립국어원. (n.d.). 기록.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5.10.22.)

굽시니스트. (2017.11.14.). 불안은 수면을 잠식한다 [굽시니스트 시사만화]. 시사IN-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인 만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9&page=21&total=429> (2025.11.07.)

김명훈. (2014). 기억과 기록-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기록학연구』, (42), 3-35.

남태령 기록보관소 [@namchiving]. (2025.01.26.) [공지] 남태령 동지 여러분, 전농 공식 라이브 영상이 소실되었습니다. [Tweet]. X.

<https://x.com/namchiving/status/1883373583591960605> (2025.11.07.)

노명환. (2011).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발전 방향: 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97-121.

니나. (2025.01.29.). 기록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 아카이빙, 누가 하고 있나?- 기록과 사회.

<https://maily.so/archivenews/posts/32z868xpon4> (2025.03.05.)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록과정보·문화연구모임. (2025.01.03.). 12.03 계엄사태와 민주주의 위기 -수호와 성숙을 위한 아카이브-.

<https://1203archive.oopy.io/>. (2025.03.05.)

- 박수연. (2019). “자크 데리다의 『Archive Fever』 읽기: 유령론과 차연에 주목하며”.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옥, (2009). 『데리다 & 들뢰즈: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파주: 김영사.
- 배은희, 설문원. (2024). 시민 기록활동의 정동적 영향: 개념과 분석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3), 65-84.
- 설문원. (2021a). 『기록학의 지평』. 서울:조은글터.
- 설문원. (2021b). 기억의 기록학적 의미와 실천. 『기록학연구』, 67, 267-318.
- 설문원. (2025). 은유로 읽는 기록관리 담론의 역사. 『기록학연구』, 84, 133-177.
- 손동유. (2020).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의 의미와 과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5), 89-108.
- 손동유. (2021).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모색. 『기록학연구』, (69), 7-33.
- 손영창 (2024). 리퀴르의 역사철학에서 역사와 기억의 관계에 대한 한 소고. 『철학연구』, 165-195.
- 심준섭. (2008). 행정학연구의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방법론적 다각화 (Triangulation); 질적 방법과 양적방법의 결합. 『한국행정연구』, 17(3), 3-31.
- 안병직. (2007). 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보』, 193, 275-306.
- 염지숙. (2003).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염지숙. (2009). 유아교육연구에서의 내러티브 탐구: “관계”와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 주목하기. 『유아교육학논집』, 13(6), 235-253.
- 염지숙. (2020). 내러티브 탐구 연구방법론에서 관계적 윤리의 실천에 대한 소고. 『유아교육학논집』, 24(2), 357-373.
- 윤은하. (2011).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 77-94.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 윤은하. (2022). 국내 민간기록관리의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성 연구. 『기록학연구』, (72), 5-32.
- 윤은하. (2023). 시민기록에 대한 개념적 고찰. 『기록학연구』, (77), 75-107.
- 이경래, 이광석. (2017). 동시대 ‘대항기억’의 기록화: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3), 45-77.
- 이경래. (2022). 정동의 기록화 ‘4.16 기억저장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4), 5-43.
- 이경래. (2025. 05. 30.). 능동적 사회개입, 실천적 아키비스트 [발표]. 강석주 (사회), 아키비스트 현상: 동시대 아키비스트의 문화사회학 [학술대회]. 서울, 대한민국.
- 이동연. (2016). 정동과 이데올로기. 『문화과학』, 86, 24-58.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 월가 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213-243.
- 이호신. (2012). “주제전문사서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호신. (2015). 문헌정보학 연구방법으로서의 이야기 -내러티브 탐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149-172.
- 장대환. (2019). “기억, 기록, 아카이브 정의(正義)”.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열, 조찬식. (2018). 『문헌정보학 조사연구법』. 서울:한국도서관협회.
- 천둥. (2025). 『팬덤에서 자유로: 1열 본능 덕후들의 민주시민 입문기』. 대전: 모두의책협동조합.
- 최호근. (2003).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 159-189.
- 홍명아. (2020). “독서동아리 회장의 독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성균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5-21.
- 홍영숙. (2019). ‘관계적 탐구’로서의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5(1), 21-107.
- 홍영숙. (2020). 내러티브 논문작성의 실제.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3), 7-28.
- Jean Clandinin, (2015).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염지숙, 강현석, 박세원, 조덕주, 조인숙 공역) 파주: 교육과학사.

2. 국외문헌

- Brothman, B. (2001). The past that archives keep: Memory, history, and the preservation of archival records. *Archivaria*, 48-80.
- Bruner, J. (1991). The Narrative Construction of Reality. *Critical Inquiry*, 18(1), 1-21.
- Caswell, M., Cifor, M., Ramirez, M. H. (2016). “To Suddenly Discover Yourself Existing”: Uncovering th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79(1), 56-81.
- Caswell, M., Cifor, M. (2016). From Human Rights to Feminist Ethics: Radical Empathy in the Archives. *Archivaria*, 81, 23-43.
- Clandinin, D. J.,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 experience and story in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재인용.
- Cook, T. (2013).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3(2-3), 95-120.
- Derrida, J., Prenowitz, E. (1995).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Diacritics*, 25(2), 9-63.
- Dewey, J.(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Collier Books. 재

인용.

- Jimerson, R. C. (2003). Archives and memory. *OCLC Systems & Services: International digital library perspectives*, 19(3), 89–95.
- Ketelaar, E. (1999). Archivalis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7(1), 54–61.
- Polkinghorne, D. E. (1995). Narrative configuration in qualitativ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8(1), 5–23.
- Riessman, K. C. (2000). Analysis of personal narratives. In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pp 168–191).
- Yeo, G. (2007). Concepts of Record (1):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The American Archivist*, 70(2), 315–343.

3.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 2025.10.01.]

KS X ISO 15489-1:2016 문헌정보-기록관리-제1부: 개념과 원칙 [발행 2021.03.29.]

InterPARES Trust. (2018). record [English].

<https://interparestrust.org/terminology/term/record/en> (2025.10.22.)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제목: 시민 기록 생산자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중심으로 -

연구자: 김세현(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과정)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아카이브 구축에 나선 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록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사회적 사건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기록한 이 사례가 기록학적 관점에서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연구자와 함께 총 2회, 회당 1시간에서 2시간 분량의 심층 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면담에서는 귀하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되며,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메모 및 녹취록이 작성될 예정이라는 사실 안내 드립니다. 이렇게 작성된 녹취록은 연구의 기초 자료인 ‘현장텍스트’로 기능하며, 이렇게 작성한 녹취록(현장텍스트)를 귀하가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오기된 내용을 검토하고, 공개되면 곤란한 내용에 대한 삭제 및 수정 요청하는 단계를 거친 후 연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두 차례의 면담을 거친 이후 귀하의 면담 내용, 즉 ‘이야기’를 내러티브적으로 재구성한 연구텍스트의 초고를 귀하에게 안내하고, 수정 및 삭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귀하와 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완료된 연구텍스트는 최종적으로 연구자의 논문에 게재됩니다.

본 연구는 귀하에게 따르는 신체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지만, 설문 진행

에 있어서 문항이나 장소, 조사 연구원의 태도 등이 초래하는 혹시 모를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겪으실 경우 면담 과정에서 즉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연구 참여자로서 면담 과정에서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귀하의 신상에 대한 어떤 자료도 귀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하신 내용 중 귀하께서 공개를 꺼리는 부분은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연구결과물의 외부 공개가 귀하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결과물에 귀하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고,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우선하여 세부 사항을 비트는 등 내러티브를 일부 재구성하는 익명화 작업을 거칠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표현까지 그대로 수록될 예정이오니, 이 점에 대해 숙고하셔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일이 귀하께 많은 번거로움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하심으로써 그간 귀하의 아카이빙 작업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성찰하고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일반 시민이 사회적 사건을 아카이빙하게끔 이끄는 동기와 그 양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참으시다면 귀한 시간 내어 참여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참여를 허락하신다면 다음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하여 제공한 정보가 본인의 허락 없이 누출되지 않을 것이고,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 그리고 면담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연구결과로 작성되는 모든 출판활동이 본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면담 내용이 녹음되고,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이 작성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본인 ()는 이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며,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모든 동의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참여자 (인)

연구자 (인)

년

월

일

질문지

아래는 질문지입니다. 다만 이 질문은 귀하께서 면담 과정에서 어떠한 답변을 할지 미리 생각해두는 등 면담 진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가질 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면담 진행 시 이러한 질문을 기반으로 면담을 이끌어나가되, 즉흥적으로 떠오른 화제도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첫 번째 면담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삶의 모습’, ‘기록 동기’에 대하여, 두 번째 면담에서는 ‘아카이브 구축 과정’, 세 번째 면담에서는 ‘대선 이후, 아카이브 작업을 돌아보며’, 네 번째 면담에서는 ‘대선 이후, 아카이브 작업을 돌아보며’, ‘비상계엄 사태 및 아카이빙 전후의 내적 변화’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 범주 | 하위 범주 | 질문 예시 |
|------------------------|---------|---|
|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삶의 모습 | 정체성과 일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12월 3일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며 지내셨나요? 직업, 일상 습관, 인간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당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셨나요? 예를 들어 ‘○○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그 가치가 형성된 계기와 일상에서의 실천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살아오면서 변화해온 가치관에 대해 설명해주셔도 좋습니다.) |
| | 사회적 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계엄 전, 사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두셨나요? 구체적으로 참여했던 활동(서명 운동, 집회, 온라인 토론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 기록 습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계엄 사태 전에도 일상 기록을 남기던 습관이 있었나요? 있다면 어떤 매체(일기장,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를 주로 사용하셨나요?” “당시의 일상이 현재 아카이브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직업적 경험이 기록 분류 방식에 반영되었다면 설명해주세요.” |

| | | |
|----------|-----------------|--|
| 기록 동기 | 심적 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기록 활동을 결심하게 된 구체적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어 목격한 장면, 접한 기록, 혹은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이 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의 증언이나 사진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아카이브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목적을 키워드로 제시한 후 설명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수집하신 기록이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만약 특정 세대나 집단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록물 공개 후 실제로 발생한 변화나 피드백 중 인상 깊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집하신 기록을 100년 후의 시민들이 본다면, 그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직접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건가요?” |
| 기록 활동 과정 | 기록물 수집 및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기록물을 수집하였나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집한 기록물, 혹은 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은 기록물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록물을 수집한 방식은 어떠한가요?” “현재 수집한 기록물을 온라인, 출판 등의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면, 그 방식은 어떠한지 소개해 주세요.” |
| | 기록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 수집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록을 서비스하기 위해 어떤 자원(인력, 예산, 기술)이 가장 절실했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시민들이 직접 자료를 기증하거나 편집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면, 그들이 보인 반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기록 제공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면, 그 이유와 극복 방안은 무엇이었나요?” |
| | 기록 활동 이후의 감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한 기록물 중 가장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와 함께 해당 자료를 발견하거나 기증받은 과정을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이 기록 활동이 선생님의 정체성(시민, 활동가, 학자 |

| | | |
|----------------------|-------------------|--|
| | | <p>등)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시나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반대로 희망을 느낀 결정적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였나요?” |
| | 앞으로의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서비스 중이시라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선생님의 서비스는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카이브를 구축하셨다면, 추후 지속적인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시민 단체 등에 아카이브를 양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 대선 이후, 아카이브 작업을 돌아보며 | 위험한 상황 속에서의 기록 실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시민사회 탄압은 계엄령 선포 이전에도 이어져 왔고, 윤석열 정부가 일반 국민까지 포함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기록 활동을 이어가가기로 한 결정적 계기나 순간, 혹은 전반적인 이유가 있을까요?(이 외에도 이하 모든 질문은 민감할 수 있는 문항인 만큼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뚱뚱그려 이야기하거나,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 “파면이 확정되기 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기록 활동을 이어가며 들었던 생각이 있다면 솔직하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대선 국면과 기록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 결과에 따라 선생님의 기록 활동이 어떤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관련해서 느낀 감정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권 교체 이후 한 명의 시민으로서,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를 기록해온 시민 기록가로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셨나요?”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 시민 기록의 역할 | 다른 시민과의 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위험을 감수하며 기록 활동을 한 다른 시민들과의 연대감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그 연대감이 어떤 힘이 되었나요?” • “기록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후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함께여서 가능했던 기록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선생님의 기록 활동이 다른 시민들에게 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영향은 무엇일까요?” |
| | 시민 기록과 민주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 대선 국면까지 경험한 시민들의 경험과 감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을 남기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자부심이 커진 경험이 있었나요?” • “선생님께서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사회적으로 문혔을 사건이나 목소리가 있었다고 느끼시나요? 이러한 것들이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일 아니라면, 그 이유와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시민들이 모은 기록과 아카이브가 민주주의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미래 세대가 시민기록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사회적 연대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민 기록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
| <p>비상계엄 사태 및 기록 활동 전후의 내적 변화</p> | <p>가치관 및 정체성 변동</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엄 사태 이전과 비교해, 현재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 변화를 일으킨 결정적 경험은 무엇인가요?” • “시민 기록가로서의 경험이 ‘자아’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키워드로 설명한다면, ‘○○에서 △△로 변한 사람’과 같이,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 “이 작업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 혹은 한계는 무엇인가요?” •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기록가’, ‘활동가’ 등 키워드를 제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

ABSTRACT

A Narrative Inquiry into Citizen Recording Practices: during the December 3 Martial Law Crisis

Kim, Se-Hyeon

Major i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traces the recording activities and significance of citizen record producers who documented the December 3 Martial Law crisis through the methodology of “Narrative Inquiry,” which seeks to understand human experience and derive insights into life through stories. The researcher constructed an autobiographical narrative based on the confusion over “What is ‘the record?’” and the question, “Why did they choose to record even amidst danger?” and completed the “research puzzle” together with three participants met in the field: Min Yi-hyeon, Min Jeong-ah, and Min Young-ju.

The participants’ stories were reconstructed into distinct literary forms to reflect their unique characters: Min Yi-hyeon’s essay, <I Don’t Want to Regret Twice>; Min Jeong-ah’s novel, <Hope Remains at the Bottom of Pandora’s Box>; and Min Young-ju’s monologue play, <Becoming a Bridge that Connects People and Heads Toward the Future>.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participants hoped their experiences of voicing their opinions in the public square would serve as proof of existence—not only for themselves but also for those present with them—and preserve the collective memory of that space. Furthermore, they endeavored to record not merely dry facts, but their lived experiences and emotions. Engaging in recording practices, they were—consciously or unconsciously—driven by “affect,” the emotional and physical intensity that motivates the act of recording. By documenting their own history, the participants transformed from passive objects into active subjects of records. Furthermore, they held the profound pride and expectation that the records they left behind would be transmitted as enduring testimonies to the preservation of democracy in Korean society.

While the “voids” of records and archives can never be perfectly filled, these very spaces endow the act of recording with meaning. Archives are not closed but open toward the future, inviting others to read new meanings within the margins and inspiring further archival actions. Although individual records may be incomplete, records produced by diverse subjects serve as complementary puzzle pieces that constitute our society.

This study concludes by calling upon the researcher’s own realization regarding the value of citizen records. It leaves a final question for the readers: What kind of influence will this story have on you, what records will you leave behind, and what kind of life will you lead?

【Keywords】 Citizen Record, Social Memory, Affect, Archival Activism, Narrative Inquiry